

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 “인물이 없다”

10월 인준 마치고 11월 회장으로 선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11월 총회를 앞두고 수석부회장 선출에 골몰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교협 정기월례회에서 박효우 회장은 “9월 안에 후보를 확정 짓고 10월에 인준한 후, 11월 총회에서 회장에 공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회장이 임기 초부터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그동안 몇몇 교계 인사가 수석부회장의 물망에 올랐지만 여전히 “마땅한 인물”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44회 총회에서는 교협 역사상 유례없이 수석부회장이 공석으로 남았다. 교협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공천되고 큰 이변이 없는 한 총회에서 박수로 당선되어 왔다. 따라서 수석부회장은 임기 1년 동안 회장을 보좌하는 동시에 그 사역의 연속선 위에서 자신의 회장 임기 중 사역을 구상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지난 제44회 총회에서는 수석부회장 출마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총회에서는 임시로, 공천위원회에 수석부회장을 선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상태였다.

박효우 회장은, 따라서, 임기 초부터 수석부회장 선출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했을 뿐 아니라 10개월 이상 수석부회장 없이 교협을 이끌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수석부회장, 즉 차기 회장도 1개월만 부회장 임기를 수행한 후, 즉시 회장에 오르기 때문에 회장직을 준비하는 데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월에는 A 목사가 수석부회장 후보로 추천을 받았다. 미국장로교(PCUSA) 소속 교회에서 목회 중인 그는 한인교계는 물론 교단 내에서도 중직을 맡을 정도로, 신망이 높았다. 그러나 그는 약 한 달 만에 돌연 수석부회장 직을 사양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협 측은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교계 내외에서는 미국장로교 내에서 동성결혼으로 인한 교단 내 갈등이 심해진 것이 그 사유 중 하나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협 활동은 아무래도 무리수가 크기 때문이다.

그 후, 6월경 또 다른 후보, B 목사가 거론됐으나 그는 고령을 이유로 후보직을 사양했다. LA 한인타운 내에서 목회자로 명망있는 그는 과거부터 수석부회장 후보로 거론된 바 있지만 번번이 고사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C 목사가 물망에 올랐다. 그는 목회자, 신학자이면서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후보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또 같은 교단에서 중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D 목사도 주변에서 추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교계 내에서는 수석부회장이 공석인 이 사태에 대해 자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 “인물”로 귀결된다. 일단 겉으로 보이는 바는 결국 ‘십자가 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교협의 행정 구조상 회장에게 사역의 기획과 추진 등 대다수의 일이 부과되기 때문에 회장을 맡아 1년 섬기는 것은 자신의 교회 사역이나 목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은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다’는 말임과 동시에 십자가를 질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옆에서 십자가를 함께 져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누구라도 선뜻, 교계를 위해 봉사해 보겠다고 나서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점 때문에 매년 총회 때마다 교단이 인물을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진전을 본 적은 없다. >> 3면에 계속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교실, 사랑의 캠프 등 밀알선교단의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이 대통령과 하원의원의 봉사상을 받았다.

“우리가 바로 밀알이에요!”

13일(토) 오전 11시 30분에 한길교회(노진준 목사)에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주최로 “2014년 대통령자원봉사상 및 에드로이스연방원의원봉사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대통령자원봉사상 수여식에서 수상한 학생들은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영선)의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한 무료 토요학교인 사랑의 교실(Class AGAPE), 사랑의 캠프 및 기타 봉사

프로그램에 동참한 학생들로 대통령자원봉사상 62명, 에드로이스연방원의원봉사상 14명 등 총 76명이 수상했다.

2014년 사랑의 교실 영상 상영 후 사랑의 교실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수여식에서 이영선 단장이 환영사를 전한 후 이정희 목사가 마태복음 5장 16절을 바탕으로 “빛을 비추라”는 말씀을 전했다. 이후 이정수 디렉터와 존 리 행사위원장이 대

통령자원봉사상을 전달했고, 이영선 단장이 에드로이스연방원의원봉사상과 2014년 사랑의 교실 에세이 상을 전달했다.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을 위해 1979년에 총신대 신학생이던 시각장애인 이재서 박사에 의해 설립된 밀알선교단은 현재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66개 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 주디 기자

목회자 자녀와 한인 청소년 돕는 기금마련 일일 식당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장학금과 서류 미비로 학업의 곤란을 겪고 있는 한인가정 청소년을 위한 기금마련 일일식당 행사가 10월 13일~14일 양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미락2(110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90006)에서 열린다. 이 행사를 주최한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정종윤 목사)는 “사랑의 밥 한 숟가락과 베품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교회와 교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남가주한인목사회가 목회자 자녀 및 한인 청소년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를 열었다. 왼쪽부터 심진구, 백지영, 강지원, 정종윤 목사.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파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C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사 (M.DIV.) & 신학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11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인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이상훈 목사의 터키 선교여행 일기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서” (4)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4월 26일 토요일 늦은 오후에 말라티아에 도착했습니다. 틸만 선교사님, 네자티 목사님 그리고 우리 형제님 세 분의 순교가 일어났던 이곳. 마침내 7년 만에 밟았습니다. 웬지 말라티아를 생각할 때 삭막한 곳,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운 곳, 골목골목마다 불길한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들, 이런 선입견이 말라티아에 있었습니다.



이상훈 목사
성광장로교회 담임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말라티아의 첫 모습은 “와! 아름답다”였습니다. 도시 뒤에 솟아 있는 푸르른 산은 정다웠고, 도시는 따뜻하고 골목마다 집집마다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에게겐 해맑은 청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터키 어느 곳에서도 제가 이방인이라 배척당하고 눈총을 받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터키는 인정이 따뜻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말라티아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도 더욱 다정하고 친근한 느낌이었습니다.

도심을 가로질러 우리는 1시간 가량 걸어서 팀과 세라 선교사 가정을 찾아 갔습니다. 그들은 2007년 순교 사건 직후에 홀로 남은 틸만 선교사의 부인인 수산나 선교사를 위로하고 돕기 위하여 앙카라에서 자진하여 말라티아로 사역지를 옮겨온 미국 WEC선교회 파송 선교사 가정입니다.

7층 아파트의 맨 꼭대기층.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아파트의 꼭대기 층을 얻는답니다.

에베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도 이웃에게 잘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말라티아에는 미국 WEC선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47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연합하여 교회 개척과 제자 양육에 주력하며 동역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장자인 론과 루이스 선교사 가정, 해리와 조이 선교사 가정, 수산나 선교사, 그리고 팀과 세라 선교사 가정입니다.

론과 루이스는 전형적 백인 가정으로 그들은 친자녀 둘을 다 키우고 분가시킨 후에 두 명의 아이들을 입양하여 키우고 있었습니다. 모습만 보아도 존경스러운 훌륭한 인품의 분들입니다.

해리와 조이 가정은 결혼을 늦게 하여 아이들이 늦어져서 손주 불나이에 고생하고 있다며 행복한 투정을 하는 모습들이 전진난만한 아이들 같았습니다. 팀과 세라는 그들 중 여러 면으로 리더 역할을 합니다. 피스메이커란 생각이 들었습

니다. 팀은 간간히 보이는 백인인데 마음은 부드럽고 자상한 분입니다. 세라는 한국계 2세로서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은 분입니다. 수산나는 그 얼굴 모습에 평안하고 고요함이 묻어납니다. ‘이 분은 정말 선교사다’하는 마음이 드는 따뜻한 독일인 아주머니입니다.

이렇게 말라티아에는 2007년 세분의 순교의 피의 열매로 만나게 된 미국인, 독일인, 한국인 선교사들과 터키 현지인 사역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연합을 이룬, 초대교회 때의 안디옥교회 같은 교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팀과 세라 가정은 아침부터 부산합니다. 아이들이 넷. 3남 1녀. 너무나 멋진 아들과 정말 예쁘고 귀여운 딸입니다.

드디어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10분쯤 걸어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상가 건물 한 쪽을 빌렸습니다. 입구 위에 교회 간판을 걸었습니다. 터키어로 구원의방주교회라고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007년 순교 사건 이후부터 자기들이 기독교인인 것을, 선교사인 것을 밝히고 사역을 합니다. 교회도 숨어서 하지 않고 교회 이

름을 내걸고 예배 때도 문을 닫고 비밀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때는 오히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게, 누구라도 그 안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들은 목숨을 걸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8.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예배 시작은 찬양입니다. 찬양인도자 루카스, 순교자 틸만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아! 저 아이가 어느새 저렇게 커서 아버지의 교회 찬양인도자가 되었구나.’ 감사했습니다.

루카스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녔던 독일 신학교에 합격이 되어 기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뒤를 이어 목사가 되어 이 말라티아에서 제2, 제3의 교회를 개척하여 선교하는 것을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 여깁니다.

거의 모든 교우들이 예배의 순서를 담당하며 예배는 차분하면서도 은혜롭게 이어졌습니다. 말씀은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전합니다. 예배 중에 성경 묵상 시간이 있어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공부한 것을

발표합니다. 그들의 아멘 소리가 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매주 거행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흐르는 말라티아 그 땅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4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며, 성찬식 때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룩한 모습들이 예배당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예배가 우리들의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친교한 후 저는 저녁 식사 전까지 전도하기 위해 거리로 나갔습니다.

점포에서 버스표를 사서, 오는 버스를 무작정 탔습니다. 몇 정거장 가다가 큰 공원이 나와서 내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 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여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 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몇 곡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한 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영혼들을 찾아 몇 사람에게 차례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계속)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리더를 위한
통큰통독 활용세미나

하나님나라와 소통하는 성경읽기인 90일 통큰통독의 목회적인 적용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통큰통독>의 저자인 주해홍 목사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전체를 조망하는 40시간 강의>와 소그룹나눔 그리고 실제적 운영방법강의 및 사례발표로 진행됩니다.

강사 | 주해홍 목사
(통큰통독 저자, 에스라 성경통독사역원 원장)

강사 / 저자 주해홍 목사
학력 / 연세대학교 행정학 전공
보스턴대학교 경영학 석사 (MBA)
Pacific Christian College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현 International Hope University)
경력 / ANC 온누리교회
성경대학에서 성경지도
25년간 주정부 감사관으로 근무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 강의
에스라 성경통독사역원 원장

통큰통독의 특징

1. 성경을 종말론적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통전적으로 읽게 합니다.
2. 연대순으로 재정리해서 통독하므로 성경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3. 읽기표와 읽기짜, 해설, 오디오 CD의 도움으로 90일 통독이 가능합니다.
4. 교회별로 통큰통독 소그룹 모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거룩한 삶의 관점으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통큰통독입니다.

대상
성경일독학교를 교회에서 운영하기 원하는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리더 (단, 평신도 리더일 경우 담임목사 추천서 필요)

일정 2014년 10월 20일(월) — 23일(목)
월/오후 1시-9시, 화-목/오전 10시-저녁 9시

장소 남가주 성시교회
730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등록비 \$150 (9월30일까지 조기등록일 경우 \$120)
식사 제공. 단, 숙박을 원하시는 경우 1박에 \$60 (1인실 기준, 2인실의 경우는 \$30)의 추가비용이 있습니다.

등록인원 선착순 100명
교재 / 주해홍 목사의 <통큰통독> (별도 구매). 참석자들에게는 주해홍 목사의 강의 CD와 인도자를 위한 도표, PPT강의안을 제공해드립니다.

신청 및 문의 두란노서원 세미나팀
213 235 1068 Email / seminar@duranno.us

후원: 미주두란노서원, 미주복음방송, CGNTV, 오렌지카운티목사회, 기독교일보

미주두란노 세미나팀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가 은혜한인교회에서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은혜한인교회



남가주교협 9월 정기 월례회에서 박호우 회장이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 월례회에는 약 50여 명의 교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계 복음화 마무리 위해 기도와 물질 드리자

미기총 후원의 밤 은혜한인교회에서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가 은혜한인교회에서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미기총은 지난 7월 한기총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가 16대 대표회장에 취임한 이후 연합 사역의 발전과 전국화,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미기총은 1997년 5월 창립됐지만 주로 중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했기에 서부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그러

다 송정명 목사(미주평안교회 원로)가 13대 대표회장에 선출되면서부터 서부 지역에서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9월 11일, 이번 후원의 밤에서 한기총 대표회장은 미주 한인교회의 일치와 협력, 선교를 위해 이민교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특히 전국을 순회하며 미기총 주최 기도 성회를 열어 기도의 불을 붙이기로 했다. 일단 11월 11일 애너하임의 엔젤스 스타디움에서 다민족기도성회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5년 1월부터 LA, 달라스, 뉴욕, DC, 시카고, 시애틀로 기도회를 이어간다.

후원의 밤에는 민경엽 OC교협회장, 안효진 LA한인회장, 최재현 LA평통회장, 미셸 스틸 조세형평국장, 김가등 OC한인회장 등의 교계, 사회 인사들도 참석했다. 후원회장인 이동양 장로는 미기총의 연합사업, 장학사업 등을 설명한 후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로 세계 복음화를 마무리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수현 기자**

남가주교협 월례회에서 각종 사업 논의

>> 1면으로부터 계속 또 하나는 교협 내에서도 차세대 발굴이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뜻한다. 최근 몇 년간 한기총, 신승호, 지용덕, 민중기, 변영익, 진규철 목사 등 소위 실력파들이 연이어 회장이 되면서 교협의 지위가 한인사회 내에서 상당히 격상되었지만 그 말은 동시에 새로운 일꾼들이 교협에 계속 수혈되지 않는 한, “이미 교협회장을 할 사람은 다 하고 남은 사람이 없다”는 한탄은 44회 총회 이후 얼마든지 반복될 것이다. 또한, 환경적인 부분도 있다. 과거에는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교회들까지 남가주교협을 통해 연합 사업에 참여했지만 약 3여 년 전부터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협협의회가 독자적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목회자들은 남가주교협이 아닌 오렌지카운티교협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물 부재론은 더욱 가중화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교협 내에 계파 갈등이나 주도권 다툼을 멈추어야 한다는 ‘쓴 여론’도 있다. 아무

래도 교협회장에게 임원 인선의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에서, 실용적인 면에서 교협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해당 연합사업의 주도권이 많이 바뀔 수 있기에 소위 ‘자기 사람 밀어주기’로 수석부회장을 세우려는 관행이 교계에서 근절되어야 정말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지난 9월 7일 나침반교회에서 열린 차세대리더장학금 수여식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 2명에게 장학금이 수여됐다. 또 남가주교협과 한국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합동설교집 출판에 관한 보고, 10월 교계연합 부흥회에 관한 보고가 이어졌다.

또 특별히 교협 내에 사랑의쌀운동을 위한 특별상설분과를 만들어 매년 이 사업을 교협이 주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성시화운동 측에 과거의 사랑의쌀운동 재정 공개와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준형 기자**

미주복음방송 사장에 송정명 목사

미주복음방송(GBC, AM1190) 사장에 송정명 목사가 선출됐다. LA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인 미주복음방송은 최근 이사회에서 송 목사를 박신욱 사장의 후임으로 뽑았다.

송 목사는 동양선교교회 수석부목사를 거쳐 미주평안교회에서 24년 간 담임목사로 섬기다 은퇴했으며 현재 월드미션대학교 총장으로 봉직하고 있다. 그는 성결대학교 신학과, 고려대

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D. Min.)를 취득했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LA 대표회장,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교계 연합사역에 헌신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준형 기자**



송정명 목사

“도시의 부흥과 회복을!” 성시화 치유 부흥성회 열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티노 공동체를 섬기고 라티노 교회를 세워 로스앤젤레스 전체를 성령으로 성시화 하기 위한 성시화 치유 부흥성회가 11일, 12일 나성동산교회(한기총 목사)에서, 13일 엔젤리카 루터교회(Carlos Paiva 목사)에서, 14일 오전 이글레시아 선키스트교회(Jorge Herrera 목사)에서, 같은 날 오후 UBM교회 열바인 성전(앤드류 김 목사)에서 열렸다.

11일과 12일 라티노를 대상으로 한 성회에서 원준상 브라질 선교사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회를 인도했다.



원준상 선교사

그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라 말한 후, 마귀의 근원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며 “예수를 믿지 않으면 빛, 진리, 생명이 없기에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 마귀를 위해 예비된 곳에 간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강조하며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이신다. 예수님의 사역지는 길거리였다. 주일에 배를 드리는 건 일주일 간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브라질에서 성회를 이끌 때 목격한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며 말씀의 권능을 강조했다. **한 주디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질질하게 웃음으로 생판에 드립니다. 무덤덤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점: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총판인사: 1701 W Orangef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323.737.8888 (8월14일~10월~서부인사) T.213.453.6624 (이리향아맛일구)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격	\$90	240g 소비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2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370
4개 구입시	\$230	3개 구입시	\$555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기독교 학교의 떠오르는 아이콘 새언약학교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가치있고 아름답게 하는 교육 꿈꿔

만나고 나면, 기존에 그의 직업이나 지위에 대해 갖고 있던 이미지가 더 확고해 지는 사람이 있다. 반면에 만남을 통해 기존의 이미지가 깨지고 새로운 이미지가 자리 잡는 경우가 있다. 기자가 '교장'에 대해 품고 있던 이미지는 일단 나이가 지긋하다. 백발은 아니더라도 주름살 진 얼굴이 떠오른다. 아무래도 학교 안에서 가장 웃어넘긴다 보니 꼬장꼬장한 성격의 권위주의자일 듯도 하다.

1999년에 설립된 이후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작은 학교의 원칙 아래 매해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기독교학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한인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새언약학교(New Covenant Academy)의 제이슨 송 교장의 교장실 문을 두드렸다.

기자를 허물없이 맞이한 교장은 기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오늘날 공교육의 현실과 한인가정의 문제, 형식적인 죽은 신앙이 아닌 적용과 실천이 살아있는 신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쉬지 않고 쏟아냈다. 열정과 도전이 살아 있는 '젊은' 그와의 만남을 통해 교장에 대해 갖고 있던 기존 이미지는 깨졌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교사', 즉 '가르치는 자'의 전형을 보았다.

- 설립취지, 교육에 몸담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때 대학생들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찾지 못해 늘 불안해하며 눈앞의 일에만 연연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어려움이 해결되면 결국 교회를 떠나는 이

들을 보며, 대학생 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좀 늦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은 '부모의 강요 없이 진지하게 공부하고 싶다'고 말한다. 또 '신앙도 부모 말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고 싶다'고 말한다. 부모님이 정말 신앙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그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교회에는 다니나 부모의 삶에는 신앙이 보이지 않으니 갈등하고 고민한다. 학교도 가고 싶지 않고, '너희 때문에 미국에 왔다'는 부모의 말에 부담감도 크다. 이런 억압적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가면 완전히 풀어져 첫 일년은 마약도 하고, 늘어지게 먹고 마시며 보낸다.

한편으로 한인 부모가 갖고 있는 교리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부모공경'을 강요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짐을 지우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며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좋은 직장 잡기 위해' 공부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 받는,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로 양육하고 싶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신앙의 터 위에서 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체적으로 한인가정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부모들이 바쁘다보니 자녀에게 짜증을 낼 때도 많고 힘들어한다. 교회도 문제가 있다. 이민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많은 일들을 맡긴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지치기 시작한다. 주일학교도 무너지고 삶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부분이 많이 약화됐다. '부모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인 대학진학은 우리가 책임

져 주겠으니, 우리에게 시간을 준다면 인성과 영성을 가르치겠다'는 동기에서 이 학교를 설립했다.

- 학교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되며, 특화된 분야는?

가장 큰 특징은 학급 규모를 작게 운영하는 것이다. 교사 1인당 학생 10명의 소규모로 학급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지도할 수 있다. 교사들은 모든 교재를 검토해 그 중 가장 적절한 것을 엄선해 사용한다. 많은 학교들이, 아이들의 성장과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과거의 교육방식을 고수하지만 NCA는 젊은 학교이니 만큼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두려움이 없다.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 유능한 교사는 필수적이다. NCA의 모든 교사는 매해 교사 연수에 참가해 새 교수법을 배우고 교사를 관리하는 감독관이 매 수업을 참관하며 교사들을 지도한다.

우리 학교 졸업생의 평균 SAT 점수는 2000점에서 2050점이다. 전국 학생의 탑 7~10%에 드는 점수다. 전체평가시험에서 초등학교생은 이보다 더 높은 7~8%에 든다. 처음부터 학생들이 우수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제대로 배웠기에 나온 결과다. 공립학교는 평가시험의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이 달라지니 여기에 사활을 건다. 그러나 NCA는 평가시험 준비를 많이 시키지 않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작은 학급, 우수한 교재, 우수한 교사, 이것들이 한꺼번에 작용하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NCA는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탑 3%에 들며 LA카운티 내에서는 탑 1% 안에 든다. 학비가 3만 불에서 3만 5천불인 명문학교들보다도 NCA 점수가 더 높다. NCA의 학비는 1만 불에서 9천불 수준이다. 한인타운에 있는 부모들은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이사를 간다. 이사 갈 형편이 안 되는 부모들은 타운에서 공립학교를 보내며 불안하니 학원에 보낸다. 그러나 영리추구가 일차적인 목적인 학원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그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에 학교를 설립한 것이기도 하다.

- 신앙 교육은 어떻게 하는가?

매 격년으로 교육방식을 바꾼다. 작년에는 성경반을 만들어 성경을 매일 가르쳤다. 올해는 목상을 한다. 학교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목상할 모습이 나온다. 학생 스스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내용을 매주 정리해서 올리면 교사가 코멘트를 달다. 이 아이들에게 맞게 다가간다. 말씀 목상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게 해주고,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들은 말로만 표현하는 것보다 서로 생각을 전달하며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묵상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주 기가 막힌 간증들, 묵상들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 같다'고 누가 글을 쓰면, 다른 친구가 자신도 그런거 같다고 댓글을 달고, 또 부모가 코멘트를 달기도 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삶을 자연스럽게 나눈다.

도전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문화다.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다시 시도해 보려 한다.

- NCA의 교육 철학은?



제이슨 송 교장

"미래의 크리스천 리더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Educate, Enable, and Equip the Christian Leaders of Tomorrow)"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거보다 더 험악하다. 학생들에게 능력을 갖게 해야 한다. 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능력을 갖추면 그들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다. 윈 오버(win over)할 수 있다.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닌다고 성경을 옆에 끼고 다닌다고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일 수 있다." 즉 삶으로 신앙을 보여줘야 한다고 가르친다. 졸업 후 그 다음 단계 즉 대학생활에서나 직장생활, 결혼생활에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닦아주는 것이다.

- 새언약학교의 비전과 계획은 뭔가?

해외에 분교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에 5년 내에 분교를 설립해 죽어가는 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중형, 대형교회들이 크리스천 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 비전을 주고 싶다.

전 세계의 선교사 자녀를 돕기 위한 온라인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 선교지에도 NCA가 지향하는 가치와 정신을 나누는 학교를 세우려 한다.

한 주디 기자



제이슨 송 교장은 NCA가 이룬 놀라운 성과는 유능한 교사들의 학생들을 향한 헌신 때문이라고 말한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안규 편집국장 : 맹 토마스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DK HEALTH INSURANCE, INC.

건강보험 전문회사 DK 건강보험(구 하나건강보험)이

65세 이상의 **메디케어 건강보험** 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강 보험 플랜을 취급합니다)



213-500-4563
 ID:DKHEALTH

P오바마 건강보험 (Covered CA)

1. 손님의 요구에 따라 각 카운티와 계약된 모든 건강보험을 보험료와 보험혜택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정부의 건강 보험 플랜이기 때문에 메디칼 그리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과의 소득에 따른 연관성이 있습니다. 플랜 가입후 메디칼에 대한 고객 서비스 그리고 각 헬스 플랜에 따른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처방약이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의료 외 혜택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항상 여러분곁에 있었습니다. 카카오키프 DKHEALTH 나 213-500-4563 을 기억 하십시오.)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

1.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을 분석하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처방약 비용 분석, 처방약 보장 분석, 차과 혜택 분석, 인경테 렌즈, 보청기, 헬스클럽등의 배나핏이 최대한 보장되는 플랜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당뇨질환이나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메디케어 건강 보험
3. 신장투석을 하고 있습니까? 신장투석을 하거나 신장이식을 하신 분들을 위한 건강 보험 등을 분석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 메디칼과 메디케어의 통합에 따른 여러가지 건강 보험중에서 고객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DK 건강보험은 메디케어의 신청 메디칼의 신청 엑스트라 헬프 플랜의 신청 그리고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의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톡 서비스를(카카오 계정 DKHEALTH 혹은 213-500-4563 을 **저장 하세요**) 제공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카카오톡 톡을 통해 건강보험의 궁금한점을 질문하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신분이나 세금을 내신 기록에 따른 보험료가 달라 질 수 있지만 최대한 저렴하며 보험가입자의 혜택을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0세부터 65세 까지의 모든 건강 보험을 도와드립니다. 65세 이상의 건강보험도 도와드립니다.

문의 전화 1-855-386-3088, 1-213-500-4563
 LA 본사 주소: 520 S VIRGIL AVE #204 *샌 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다이아몬드 바에도 오피스가 있습니다.

DK HEALTH INSURANCE, INC.
 (구, 하나건강보험)



역할분담으로 부흥을

사도행전 6:1-7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사도행전 6:1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과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과 사람을 원망하니 2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1. 소망의 기쁨으로 충만하라

외국에 나가서 나그네로 떠돌아 다니던 유대인들은 주로 장사를 하여 항상 돈이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외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던 그들이 질질절이 되어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고 뜨거운 감동이 있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회개함으로 육신이 장사하여 돈 벌어서 치장하고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황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소망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소망의 기쁨을 인하여 은혜가 충만하여지자 육신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삶을 살다가 이젠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육신을 돌보이게 하기 위하여 치장했던 팔찌나 반지, 목걸이나, 귀걸이 등을 다 빼내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신령한 교제를 계속하던 중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지난날의 생활이 더욱 부끄럽고 후회스런 삶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뜨겁게 감동하심으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만족한 은혜가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으로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영적인 성장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아직 영적인 수준이 되지 않아 성과를 보지 못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앞장세워 이 일을 감당하게 함으로 더 많은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자신들이 가진 재물이나 옷가지들을 가져다 사도들에게 내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은 너무나 가난하여 먹지

도 못하고 입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 살다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은 고급스런 옷과 재물이 제법 많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헬라과, 즉 외국에 나가 살다 들어온 과부들에게 좋은 것들로 봉사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구제를 하게 되고 그러던 중 이 과부들이 속삭여 하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가 생기면서 은혜 분위기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했던 은혜 충만한 분위기가 아닌, 금방이라도 독설이 뱉어지고 험상궂은 얼굴 표정으로 바뀐만한 안 좋은 분위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이 헬라과 유대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외국에 나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하고 어렵게 돈을 벌며 살다가 이렇듯 외국에 왔으면 따뜻하게 품어주고 베풀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도 욕을 먹는 상황이 생겨 은혜는 메말라버리고 안 좋은 감정들에 속을 끓이게 된 것입니다.

2. 역할분담의 기준(일꾼의 기준)

물질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기대심리가 우선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사도들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2사도가 모두 모여 의논을 한 뒤 모든 신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과 영적인 성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사람들에게 물건과 돈을 나누어주는 일로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인 것 같다고 말하고 그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남들로부터 제대로 믿는 자라고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구제와 봉사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을 쓰겠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망이 충만한 것이고 또한,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오로지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기 마련이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이 이끌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일곱을 택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일곱 명을 안수하여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도 성령과 지

혜로 충만하고 하늘소망의 기쁨이 충만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뜨겁고 그 교회의 목자를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잘 협력, 봉사하여 그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드리기 위한 사명감에 자기 생애를 불태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너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섬기는 자, 종, 봉사하기 위하여'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deacon(디콘)이라고 합니다. 장로는 elder(엘더)로 '믿음으로 늙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 신앙의 변동이 있으면 안되며 성질이 거뉘나지 못하여 믿고자 하는 자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은혜를 떨어뜨리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은혜에 꼭 잡혀 살아온 자들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안수집사도,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지각을 한다거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도 중에 돌아다니다거나 하는 행위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경건하게 드릴 줄 아는 것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며, 인격이며, 예절입니다.

3. 역할분담의 이유

초대교회 일꾼 집사를 세우고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계통과 질서를 위한 조직을 하지는 것입니다. 그 조직의 직급으로 계통질서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혼란을 일으켜 모르는 사이에 죄짓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성을 빼앗아 분별력을 상실하도록 만듭니다. 자기중심의 현실적인 이기심리 때문에 우선 챙기고 보자는 것으로 많은 다

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음으로 결국 그 손가락질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받자하여 사기치고 돈을 빌려 갚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양의 탈을 쓴 이리떼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되도록 돈을 빌리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혹여 남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라도 꼭 갚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역할분담을 통하여 목자는 목자본연의 사명에 열중하고 그 목회성으로 인하여 늘어난 일거리들을 목회방침에 입각하여 목자를 도와 협력하며 봉사하라고 세우는 것이 직분자들입니다. 이 직분은 감투나 명예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일로 봉사하고 사랑의 제물이 되어 희생하고 수고하라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말을 씻기심으로 그 본을 보이신 것 같이 우리도 세워질 직분자들에게 그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사도행전 6:8에 세워진 일꾼 집사들의 역할분담으로 사도들은 더 많은 시간을 깊이 있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힘 있게 선포하게 되니 믿게 되는 사람이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즉 유대교의 지도급 인물들이 자신들의 종교가 잘못된 줄 알고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구원받는 진리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각자의 역할분담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때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 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 30분 / 동부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인간정보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말씀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
- 한국상고사(교조신, 고구리,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사 한단고,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1mjongeuil@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반주자 청빙

자 격: 세례교인으로 피아노 전공자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 간증문

보내실곳: info@sunhanchurch.com

문 의: 선한목자장로교회 사무실
626-965-3443

*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한목자장로교회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왜 왕자님은 무지 많이 변신한 신데렐라를 좋아했을까요? 왕자님은 어찌하여 트랜스포머 이상으로 엄청난 변한 신데렐라에게 꼭 빠지셨을까요? 또 왜 어떤 왕자님은 하필이면 교양 있고 엄청 예쁜 귀족의 딸들을 몽땅 버리고, 일곱 난쟁이와 같이 살던 고아가 된 백설공주에게 반해 버렸을까요? 일곱 난쟁이들의 거의 모든 수발을 들던 한 여인을 꼭 데려가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찌하여 수많은 걸출한 민족들을 구원의 혈통으로 택하지 않고, 숫자도 적고, 말도 심히 안 듣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도 잡아 죽이는 유대인을 택하셨을까요? 무지 힘도 세고, 문화도 강력한 나라를 밀어두고, 약하고 숫자도 적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의로운가요?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옛장수 맘대로”입니까? 하나님이 별 볼 일 없었던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 맘대로”인가요?

우리 똑똑한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결정과 행동에 대하여 질문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정의의 하나님 맞으세요?” 이러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 속에 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새

선민으로 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적인 불공평”(divine injustice)을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택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은 “오직 은혜”(sola gratia)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리 밑에 있는 버려진 아이들” 속에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려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내 새끼가 어디 있나?” 수많은 아이들 속에서 자신의 손주를 찾는 할머니나 어머니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 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늘을 찌르는 자신의 의에 의존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의 실책입니다. 은혜로 선택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의”(自己義, self-righteousness)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 값없는 선택의 사랑이 예서나 이스마엘 같은 이방인인 우리 민족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신데렐라 혹은 백설공주가 된 것입니다.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큰 꿈과 작은 헌신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꿈과 목표가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방향하고 맙니다. 꿈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매를 성취하기 위해 전진하지만,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중간에 포기하고 쉽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 있어도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크고 멋진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주 작은 실천, 즉 꿈을 이루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새로운 결단을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작심삼일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성장하거나 성공하려면 열정적인 태도, 정확한 지식,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꿈만 있으면 꿈만 남습니다. 그러나 꿈에 실천과 헌신의 과정이 더해지면 꿈은 현실이 됩니다. 연약함과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넘쳐흐르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이룬 사람 요셉도 많은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였기에 꿈대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던진 마른 웅덩이 교실에서 거절감을 용서로 극복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의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감옥에서 잊혀짐의 고통을 충성으로 극복하고, 꿈과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음으로 마침내 꿈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의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단기 선교를 결단하고 시간과 몸을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원주민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물질과 헌신을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원주민 선교지를 위해 관심과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선교사님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드리기도 합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분야와 역할은 다 달라도 주어진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신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살람!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마음 가꾸기



김 지 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을 볼 때마다 그 정원을 가꾼 그 누군가의 정성과 사랑을 접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득히 자란 잡초와 바짝 말라버린 화초들이 가득한 마당을 보면 방치해 버린 그 누군가의 게으름을 느끼게 됩니다. 마당이나 정원의 아름다움은 사실 그것을 가꾼 사람의 정성이요 부지런함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빗대어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길 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결실을 통해서 삶의 결실은 ‘땅’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종류의 땅은 ‘마음’을 뜻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마음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친 땅이라 할지라도 땅을 일구는 작업을 통해서 그 땅은 결실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뀝니다. 거친 땅은 ‘가꾸는 작업’을 통해 ‘결실의 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가꾸는 일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만

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만들어 달라고 생떼 쓰지 마시다. 좋은 마음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땅을 가꾸기 위해서 먼저 박혀있는 각종 돌맹이들을 걷어 내야 합니다. 그곳에 가득 자라있는 각종 가시덤불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씨앗을 파종하는 것입니다. 거친 마음을 개간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파종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축복은 사람과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씨앗은 최상의 열매를 품고 있는 극상품입니다. 그렇기에 그 씨앗이 결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QT)과 새벽기도가 좋은 방법이 됩니다. 거친 세상의 소음을 멀리하고 찬양을 하거나 찬양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마음밭을 지닌 사람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만남에도 선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의 결실을 위해서 마음 가꾸기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드는 첫 출발이요,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처음부터 타고난 좋은 마음은 없습니다. 애초부터 밭과 논으로 만들어진 곳이 없듯이 말입니다. 개간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땅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풍작을 이루어낸 땅이라 할지라도 새로 씨를 뿌리기에 앞서 그 땅을 뒤집는 일(기경)을 반드시 합니다. 땅에 거름과 비료를 충분히 주어서 땅이 부드럽게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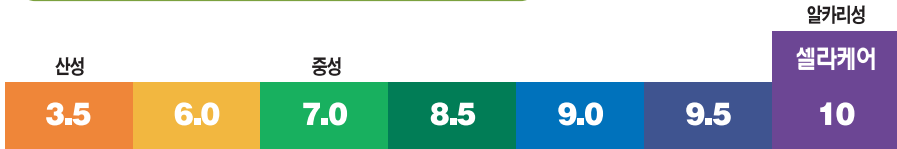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위암 3기	카이저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 M3셋트를 3개월 먹고나서 암수치 1.36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음. Mr.박(72세, 엘에이) 213-268-8381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벽.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0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발작하여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제도 호전됨. 복용 후 190kg가 125kg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정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야뇨증	아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도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직전의 다리과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영(52세, 가디나)
심한 알러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 3달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잤는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악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되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숙(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소변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선(16세, 엘에이)
체장암 말기	60세 중반에 가장 힘들다는 체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서 부터 기적적으로 체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허구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종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팍(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들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창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도 되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 이야기 21

성인이 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을 통 털어서 이야기한다면 성인병이라고 합니다. 성인병에는 심장병과 중풍을 일으키는 동맥경화, 고혈압, 악성종양, 당뇨병, 만성폐질환(慢性閉鎖性肺疾患), 퇴행성관절염, 고지혈증, 몸속에 크롬과 바나눔이라는 미네랄이 부족해서 걸리는 비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들은 대부분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하며, 증상을 완화시키는 관리가 가능할 뿐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각 기관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 걸리는 병들입니다. 성경, 그리고 의학적인 인간의 수명은 120세라고 합니다. 단,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어 유전자적으로 단명(短命)의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0세가 하늘이 정해준 천수라고 했을 때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8세이므로 약40년을 더 살지 못하는 셈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치이며, 타고난 수명보다 오래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생활습관에 신경을 쓰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을 예방하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병, 대장암, 간암, 폐암, 위암, 유방암, 간경화증, 신장암, 백혈병, 혈액암, 간암, 췌장암, 폐암, 담낭암, 소화기암, 고혈압, 남자 전립선암, 여자 전이성 유방암 등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다면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병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여러분 모두가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120살까지 몇년이 남으셨습니까? 여기서 성경말씀을 잠시 살펴본 후 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분은 믿어 보시고 꼭 따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성경말씀은 사도행전 12장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헤롯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라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병사를 베드로의 양쪽 옆에 두고 도망 못

하게 지키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도망을 갈 수 있게 해주었고, 베드로는 도망 한 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입니다. 마리아의 집에서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 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줄 알겠노라 하여 깨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로데 라고하는 하찮은 계집 아이는 한번의 음성만을 듣고도 확신에 차서 베드로가 왔다고 또는 기도응답이 되었다고 힘써 말했는데, 정작 하나님께 힘써 기도했던 사람들은 기도에 확신이 없어서 문을 열고 나서도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본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럼 여기서 모든 질병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병의 공통점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할 때 걸립니다. 혈액 순환이 잘 되어 실제로 그 자리에서 또는 몇 일 이내로 병이 낫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부디, 로데라는 아이처럼 믿음의 끈을 잡고서 병 고침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영양제 M3 무료건강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M3구입에 관한문의는 213-435-9600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 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뉴욕-뉴저지 (동부총판)	201.983.8333
시온약국	213.382.6485	LA별론 마틴약국	213.382.9718	에나하임	714.469.5809	버지니아	703.684.9199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별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시애틀	206.331.6655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얼바인	949.330.9009	센루이스,캔사스	314.570.9629
에스약국	323.733.7788	벨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렉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하와이 총판	808.359.3376
LA 다운타운	213.798.3333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LA시온마켓머사손약국	213.739.3030	부에나파크 종로의료기구	714.530.8275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사랑방	213.351.9552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렌하이츠	626.912.5727	플로리다	770.457.1717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지구촌약국 (H마트 내)	213.820.1469	캐나다	604.872.1669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세계 화인(華人)교회, 한국교회와 손잡고 세계선교

‘지상명령, 제자 사역’에 집중하는 세계화인복음운동 활발

세계화인복음운동(世界華人福音運動, 화푸운동·華福運動)이 세계 선교를 완성하기 위한 주요 세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는 세계 화인교회 지도자와 한국 선교 지도자 및 선교사들이 참여하는 ‘비전 2020 글로벌 포럼’이 열린다. 5년마다 열리는 세계화인복음회의(화푸대회)를 준비하는 예비적 모임으로, 40개국 69개 지역에서 120여 명의 화인교회 지도자와 중국어가 가능한 한국 선교 지도자 및 선교사 30여 명이 초청됐다. 화인교회 대표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제9차 화푸대회는 2년 뒤 대만에서 열린다. 화푸운동의 ‘비전 2020’은 2020년까지 세계 화인교회가 2,020개 미

전도종족을 선교하고 섬기며, 입양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어문선교회 웹진 ‘중국은 주께로’ 최신호는 이 화푸운동의 역사와 사역계획 등을 다뤘다.

화푸운동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차 세계복음화국제대회에 참석한 60여 명의 화인교회 대표에 의해 시작됐다. ‘전세계 화인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널리 전한다’는 비전으로, 당시 4천 개의 화인교회 중 약 1백 개가 이 운동에 동참했다. 현재는 9천 개의 화인교회 중 약 1천 개가 선교사역에 참여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화푸대회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비전 2020 글로벌 포럼 주제는 ‘교회의 제자를 세우고, 땅

끝까지 선교하라’다. 한국에서 화인교회를 섬기는 유진명 한성중화기독교회 목사는 한국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화인교회가 한국교회와 협력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 1년 전부터 준비됐다”며 “포럼에서는 특별히 미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화인교회 4곳과 한국의 사랑의교회, 온누리교회 등 2곳의 교회 성장 및 선교 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목사는 “이번 기회에 화인교회가 한국교회를 배우고, 한국교회도 화인교회를 배워 화푸운동의 비전 2020을 앞당겨 실현하면 좋겠다”며 “포럼에서 채택되는 선언문과 구체적인 토론 내용은 행사 이후 전세계 화인교회에 인터넷 등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한교연 임원회, 대표회장 사임 건 등 정관개정안 발의



한교연이 12월 제3-8차 임원회를 개최하고, 정관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았다. ©한교연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이하 한교연) 제3-8차 임원회가 12일 오전 11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열려 매년 1월 말에 소집하는 정기총회를 12월 중에 개최하기로 하는 등 회기 조정이 포함된 정관개정안을 발의해 실행위원회로 넘겼다.

69명(25명 출석, 44명 위임)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의 사회로 열린 임원회는 2월~익년 1월 말로 되어 있는 회기를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하는 정관개정안과 대표회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 자진 사임하고 잔여임기를 6개월 이상 남겨뒀을 경우는 대표회장을 보선, 6개월 미만을 남겨뒀을 경우는 공동회장 중에서 대행을 임명하기로 하는 등의 정관개정안을 확정해 실행위원회로 넘겼다.

안건 토의에 앞서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는 신상발언을 통해 “(본인의) 사법 판결과 관련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고심을 거듭해 왔다”면서 회기를 조정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면 11월 말까지 본인의 임기를 단축하고 12월 2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4회기 대표회장을 선

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 대표회장은 또 “예장 통합의 권고를 받아들여 9월 말로 자진 퇴임하려고 결심했으나 현행 선거법에 규정된 일정상의 문제와 타 연합기관과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 볼 때 리더십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절차상 하자가 없는 방안을 선택하게 됐다”며 “회기가 조정될 경우 2개월 지속 기간을 포함해 4개월 임기를 단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원들은 대표회장의 뜻을 받아들여 ▲정기총회를 12월 중에 개최하기로 하는 회기 조정 ▲대표회장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자진 사임 ▲선거운동 기간을 현행 45일에서 단축 등의 안건을 실행위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임원회는 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황인찬 목사)의 전 사무총장 안준배 목사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해임 결의안을 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며, 오는 29일 서울 종로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오후 2시에 실행위원회에 이어, 오후 3시에 임시총회를 개최해 정관개정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수민 기자

목사·장로 80% “교단총회 선거 깨끗하지 않다”

기윤실 인터넷 설문조사, ‘불법선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주요 장로교단들의 총회가 오는 22일 본격 개막을 앞둔 가운데 “총회 임원선거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사장 홍정길 목사)이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의 목사 81명과 장로 13명 등 94명을 대상으로 ‘교단선거 인식’에 관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9%인 76명이 ‘총회 임원선거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목사·장로의 34%는 총회대의원을 역임했으며 18%는 참관 또는 봉사 등의 목적으로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회 임

원선거가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9.4%로 제일 많았고 후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7.2%로 뒤를 이었다.

또 전체 응답자의 73.4%가 현재 교단들이 운영하는 임원선거 규칙이 대체로 미흡하다고 답했고, 보완되어야 할 규칙으로는 ‘불법선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44.7%)는 의견과 ‘당선 무효 조항 및 무효 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37.2%)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끝으로 ‘궁극적으로 총회 임원선거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94.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 이번 설문에서 제시된 의견 가운데 “교단마다 패거리 정치와 기

권과 돈을 노리는 선거꾼들이 문제다. 처벌 조항을 분명히 하고 실행해야 한다”, “선거법보다 의식개혁이 더 중요하다. 지금의 법은 매우 훌륭하지만 음성적 부정선거가 더 문제다. 법이 만들어져도 의식이 뒤따라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이 눈길을 끌었다.

기윤실 관계자는 “응답자가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임원선거에 대한 인식은 총회 임원선거 규칙을 실효성 있게 개정해 불법과 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사회선거법에 견주어 교단선거법은 징벌규정이 모호하거나 약하다며 현재보다 명확하게 불법선거를 규정하고, 적발시 실제 처벌할 수 있도록 임원선거 규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규 기자

‘아시안게임 성공기원’ 교계지도자들, 인천시와 간담회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장애인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한 인천시와 인천시 교계 지도자들간 조찬간담회가 지난 11일 로얄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인 신덕수 목사, 기독교인봉사협의회 대표회장 최성규 목사를 비롯한 70여 명의 인천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해 1부 예배, 2부 간담회 순서

로 행사를 진행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대회 설명과 함께 경기관람 등 대회 성공개회를 위해 교계 지도자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인천시 지역 교계에서는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기독교인봉사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성공적인 대회, 영진 결연운동, 선수촌 교회 운영을 3대 목표로 정하고 아

시안 게임 준비와 복음 전파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결연을 자원한 103개 교회가 45개 국가와 영진 결연을 맺고 환영 및 응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결연국가 선수단의 입국 환영 및 출국 환송을 위해 현수막, 피켓 등을 준비하여 대대적으로 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근일 기자

마커스 임선호

예배 찬양을 위한

GUITAR

클리닉

투어

Worship Guitar

LA : 9월 27일(토) 오전 10시 / KCCC 소극장(2층 205호)
 OC : 9월 27일(토) 오후 6시 / 은혜교회 웨딩채플
 Seattle : 10월 4 (토) 오전 10시 / 시애틀 형제교회 비전홀

비용 : \$15(중고등부) / \$20(단체-5명이상 등록시) / \$25(개인) pay to TMS

문의 LA, OC 최용일전도사 714-357-5518 / 시애틀 김구 425-772-2522

프로그램
 1부 작곡, 편곡과 예배 마인드
 2부 예배자를 위한 기타클리닉



One Heart Ministry

임선호 프로필

작곡 - 주님은 산 같아서, 주 오실 그날에,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의 사랑, 그가 오신 이유 등 다수 곡 작곡

***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마커스 멤버들이 예배를 섬기는 마인드와 노하우를 알고 싶은 분
 찬양팀 멤버들의 마인드 교육이 필요한 교회나 단체
 찬양팀 및 예배팀을 심급 준비를 하시는 분
 찬양인도자, 아커스틱기타 및 일렉기타 연주자의 꼭 필요한 신진 테크닉이 필요한 분

앨범, 라이브 기타세션

가요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박진영, 김연우, 이선희, 로이킴, 에일리, IU, 손담비, 아이비, 서인영, 이기찬, FT 아일랜드, 슈스케4, 휘성, 홍경민, SEEYA, 다비치, 테이, 김정민, 서영은, 하하, 노라조, 소찬휘, 왁스, 박혜경, 화요바, MC the MAX, 김연우, 유영석, 안지환, 현진영, 고유진, 플라워, 김형중, 김현성, 김남길, 양배추, 정재욱, 양파, 먼데이키즈, 이은하, 유미, 바나나보트, 김보경, JQT 등등

CCM
 마커스, 함부영, 천관용, 김도현, 강찬, 이천, 김브라이언, 해나리, 노아람, 이재영, 손영진, 손재석, 아름다운 세상, 최덕신, 심상중, 박강성, 그레이스힐 워십, 김보연, 김남철, 최명자 등등

OST
 정이, 전우치, 울랄라부부, 더킹투하츠, 파라다이스목장, 영광의 제인, 재방송 김탁구, 선덕여왕, 아이리스, 찬란한 유산, 에덴의 동쪽, 장난스런 키스, 개인의 취향, 공부의 신, 천하무적 이명강, 사인, 자영고, 최강칠우, 무반비 도시 (영화), 동상이몽 (케이비)등등

앨범 PD
 마커스워십 3,4,5집, 함부영1집, 서재현1집, 김경현1집, 지선1집, 김영민1집, 공인현1집, 마커스 10주년 앨범, 주창훈1집 등등

마커스의 임선호와 함께 하는 예배 기타 클리닉

한국의 위시 음악 분야에서 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마커스의 기타리스트 임선호 씨가 예배 기타 클리닉을 미주 서부에서 개최한다.

임 씨는 기타 연주자이면서 “주님은 산 같아서”, “주를 위한 이곳에” 등 주옥같은 찬양 곡들을 직접 작곡했다. 그는 CCM계에서는 마커스위시 앨범들과 합부영 1집 등 다수의 앨범에 참여했고 가요계에서는 소녀시대, 동방신기, 다비치, 서영은, 휘성 등 인기 가수들의 앨범에 기타 연주자로 참여했다.

이 클리닉은 9월 27일 토요일 오전 10

시에 LA KCCC 건물 205호, 같은날 오후 6시에 은혜한인교회 웨딩홀, 10월 4일 오전 10시에 시애틀형제교회에서 각각 열린다. 중고등학생은 15달러, 개인은 25달러이다. 5명 이상 단체 등록시 20달러로 할인된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원하트미니스트리는 “찬양사역자를 세우는 것만큼 연주자와 스태프를 세우는 일도 중요하다.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진정한 사역자들이 많이 만들어 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문의 : LA 지역 714-357-5518, 시애틀 지역 425-772-2522

복잡한 한미 간 세무 문제 이렇게 해결하세요



한미 세무설명회에서 이영실 미주한인공인세무사협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에서 한미 양국의 해외 금융 자산 신고 문제, 한국의 양도 및 상속 증여 세금 상식 등에 대한 정보가 교환됐다.

11일 LA총영사관과 미국국세청의 후원 아래 미주한인공인세무사협회, 한국세무사회 등의 노력으로 열린 이 설명회에서는 미국국세청의 앤드류 리 수서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강의하

고 질문과 답을 나누었다. 또 미국국세청의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제공됐다.

이 설명회에는 김현명 LA총영사와 이영실 미주한인공인세무사협회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김주연 로스앤젤레스세계한인무역협회장, 조혜영 태평양은행장 등도 참석해 메시지를 전했다.

문소현 기자

글로벌 시대 전문 물류인 양성한다



미주한인물류협회 주최로 6년 만에 제2회 물류 아카데미가 열렸다.

미주한인물류협회(Korean American Logistics Association)가 물류전문가 양성을 위한 물류 아카데미를 13일 가디나 컬처센터 2층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미주한인물류협회는 항공, 해상, 통관, 트럭, 창고업 등 물류사업에 종사하는 400여 단체 및 업체로 구성돼 있다.

이 행사에서는 장기호 대한항공 LA 화물지점장이 <항공화물 운영>을, 데이비드 유 한진해운 부장이 <해상 운송 실무>를, 브라이언 선 오션블루익스프레

스 회장이 <해상 운송 실무>를, 앤드류 서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회장이 <통관 실무 및 안전규정>을, 이시종 물류협회 트럭운송부 부회장이 <터미널 운반과 운영>을 강의했다.

데이비드 백 회장은 “한미간 교역이 활성화 되고 국가간 글로벌 통상 시대를 맞이해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적인 물류인이 필요하다”면서 “물류협회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전문 물류인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소현 기자

“کمپ션 어린이들 도우면서 저도 선물받았어요”



인기 텔런트 신애라 씨가 컴패션 사역에 관한 자신의 간증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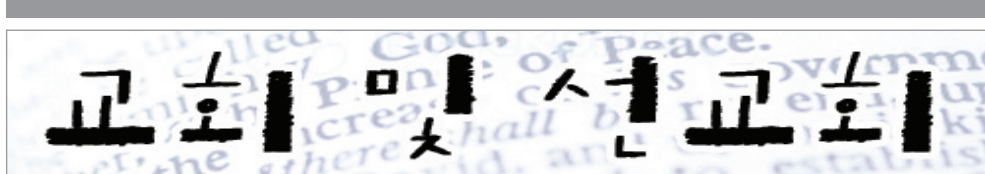
14일, 신애라와 함께 하는 컴패션 스탠드 이 행사가 예브리데이교회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서 간증한 신애라 씨는 자신이 홍보대사로 섬기는 컴패션의 사역과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털어 놓았다.

그는 10여 년 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고 하나님의 목적을 찾게 됐다. 미션 트립에 참여하며 빈곤국가 어린이들의 필요에 눈뜨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현재까지 홍보대사이면서 동시에 후원자로 컴패션 사역을 돕고 있다.

그는 “가난하지만 해맑은 미소를 가졌던 아이들을 도우면서 해맑은 미소를 저도 선물로 받았다”고 증거했다.

한편, 이 행사에는 컴패션 모빌도 등장해 전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컴패션의 사역을 현장감 있게 체험할 수 있었다. 컴패션 모빌은 컴패션의 사역 현장을 대형 컨테이너 박스 안에 옮겨 놓은 구조물이다. 이곳은 시간적, 경제적, 건강 상의 이유로 컴패션의 해외 사역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컴패션이 제작한 이동 전시관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예브리데이교회는 남가주 지역에서 컴패션 사역에 가장 열정적인 교회 중 하나다. 이 교회 성도들이 돕고 있는 어린이만 해도 무려 2천여 명에 달한다. 문소현 기자



LA 지역

한현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T. (323) 283-2600, (213) 413-1600 / laopendoor.org

엘리아 김 담임목사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사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1:45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737-3538 / www.laredeemer.com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주일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45 심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이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찬양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김경철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399-7949 / www.smkc.us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믿음, 기쁨,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박승부 장로 1-6기 수료생 배출, 현재 7기 수료생 양성 중
-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 약품이나 기구없이 손만으로 각종질환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1-7273 / (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넛 지원)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후 찬양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현연섭 담임목사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전도하는/원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323)428-7878 F.(323)932-0788 / kaiholy@hanmail.net

1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281-1196 E. isaacdeew@hotmail.com

류중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j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설 : Naturo pathy Clinic(화-금)
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회
블러시(Call),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박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인(2세)을 책임지며, 아인(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 (323)930-0011, (323)935-0011 / www.LAsarang.com

교회혁신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령침례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백재준 담임목사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토) 오전 06:00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일(토) 오전 06:00
문화교실(주일) 오후 01:30 성경연구(수) 오후 07:30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d7@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김성철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교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참성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수) 오전 10:00-11: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영어예배(EM)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ganachurch.homepage.com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45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서대어울림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산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만사형통합니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9400 / 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8:00 장래우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ay-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앞-오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 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KM) 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월/수/금)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오후 12:00 (토/일)

최호준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8: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10:00 / 11:45
금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0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10:00
목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월-금) 오전 05:30
12631 E. Imperial Highwa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최혁 담임목사

뉴욕기독교방송국 개국 기자회견 “순수 복음방송 목적”

이달부터 스마트폰 앱 통해 시험방송 시작 예정



CBSN이 10일 개국 기자회견을 가졌다.

순수 복음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뉴욕 기독교방송국(CBSN)이 개국된다. CBSN은 10일 오전 10시 30분 플라싱 금강산 식당에서 개국 기자회견을 열고 CBSN의 설립 및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CBSN은 인터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방송할 예정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방송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날 개국 기자회견에는 CBSN 사장 문석진 목사, 김수태 목사(북미원주 민선교회 대표), 임병남 목사(기독교뉴스 편집국장), 김영호 장로(전 KBS아나운서 실장), 이계훈 장로(뉴욕장로연합회 부회장), 김동욱 전도사(뉴욕코리안닷컴 대표) 등이 배석했다.

CBSN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 목적과 관련, “다매체, 다채널, 방송의 디지털화 및 융합의 시대에 걸맞는 콘텐츠로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복음방송의 가치를 높이 들고,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교회의 책임있는 일꾼이 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석진 목사는 환영인사를 통해 “북미주와 중남미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이 영적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나아가 성도들의 은혜로운 영적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광고없이 기도와 후원만으로 운영되는 방송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날 김수태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실현된다”면서 “일보다 믿음이 먼저이고 우

리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므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라면서 CBSN의 사역에 기대를 나타냈다.

CBSN 기획국장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임병남 목사는 인터넷과 앱을 통한 방송을 지향하는 것과 관련, “스마트폰은 요즘 누구나 휴대하고 있는 기기이고, 또 와이파이 가능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앱을 통한 서비스는 희망적”이라면서 CBSN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CBSN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 뉴스와 로컬 뉴스, 날씨 정보와 찬양, 인터뷰 등을 전하는 ‘CBSN광장’, 이민생활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와 진행하는 ‘전문인 상담실’, 선교사의 간증과 선교현황을 나누는 ‘선교 24시’, 크리스천의 신앙의 본이 되는 이들을 초대하는 ‘CBSN초대석’, 찬양과 토크가 있는 프로그램 ‘찬양의 쉼터’, 목회자들의 설교방송 ‘생명의 양식’ 등이 있다.

CBSN은 지난 7월부터 노턴 163가 부근에 방송국 사무실을 임대해 방송시설을 구축, 주정부 비영리법인 등록을 완료하며 준비해 왔다. 이달 중 방송요원 모집 및 이사조직을 완료한 후 이르면 내달 개국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방송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재방송된다. CBSN은 현재 시험방송을 앞두고 있으며, 방송은 스마트폰 앱(CBSN)과 웹사이트(www.CBSNewYork.net)를 통해 들을 수 있다.

김대원 기자

벤 토레이 선교사 시애틀 집회 ‘예수원과 북한사역’

오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시애틀과 타코마에서 진행

청빈의 영성을 삶으로 보여준 ‘예수원(Jesus Abbey)’ 설립자 고 대천덕 신부의 아들인 벤 토레이 선교사가 내년 예수원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오는 9월 19일(금)부터 21일까지 시애틀과 타코마에서 ‘예수원과 북한사역’을 주제로 집회를 인도한다.

집회는 19일(금) 오후 7시 30분 시애틀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를 시작으로, 20일(토) 오후 7시에는 타코마순복음큰빛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21일(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에는 시애틀운누리교회(담임 정광호 목사)에서 각각 진행된다.

벤 토레이 선교사는 4대에 걸친 목회자 가문을 잇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아버지인 대천덕 신부는 성공회 사제로 강원도에 예수원을 설립해 기도와 노동, 선교를 위해 일생을 매진했고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나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성령론II>를 저술하며 한국의 모든 교단으로부터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또한 벤 토레이 선교사의 할아버지 역시 장로교 목사로 6.25 한국 전쟁 당시의 수족 공장을 설립, 전쟁으로 불구가 된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증조 할아버지인 토레이 박사는 회중교회 목사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성령론>을 저술한 유명한 설교가이자 학자였다.

대천덕 신부의 소천 후 2005년부터 아내와 함께 예수원에 정착한 벤 토레이 선교사는 미국에서 IT 전문가와 교육자의 삶을 내려놓고 10여 년간 ‘남북통일’, ‘북한선교’를 위해 일하고 있다.

1950년 미국에서 태어난 벤 토레이 선교사는 고 대천덕(루빈 아쳐 토레이) 신

부와 고 현재인(제인 그레이 토레이) 사모를 따라 8세 때 한국으로 왔다. 10대 시절을 예수원 공동체에서 보낸 그는 사라 로렌스 대학 진학 후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시스템 개발자로 활약했고 미션스쿨을 설립해 이사장과 학장을 지내기도 했다.

벤 토레이 선교사가 북한 사역과 남북한 통일을 소명으로 받은 것은 52세이던 2002년이다. 고 대천덕 신부의 빈소를 지키던 중 지인으로부터 예전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렀었는데, ‘삼수령(三水嶺)’이라 불리는 예수원에는 한강과 낙동강, 그리고 오십천 등 세 개의 강이 흐른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예수원에 네 번째 강이 필요하고 그것은 북한으로 향하는 통일 사역이라고 깨닫게 되었다.

이후 북한 복음화와 남북한 통일을 위한 일을 시작하게 됐고, 북한 개방을 대비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준비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네 번째 강 계획’이란 이름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음 세대에 통일한국을 위한 성경적 토지법과 노동관을 가르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벤 토레이 선교사는 “통일 이전에 먼저 북한에 개방이 올 것이며, 북한 개방으로 우리가 북한에 들어갈 때 준비된 모습으로 또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가야 한다”며 “북한 복음화를 위해 준비된 모습과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섬김과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북 통일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집회는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돼 한인 1세대와 2세대를 비롯해 미국인도 참석할 수 있다.

김브라이언 기자

뉴욕교협 정·부회장 과반수 당선안 상정키로

2/3 득표 규정 완화... "부회장만 회장 출마" 조항은 연구 후 상정



뉴욕교협이 제4차 임실행위위원회를 8일 뉴욕수정성결교회에서 열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승희 목사) 제4차 임실행위위원회가 8일 오전 10시 30분 뉴욕수정성결교회(담임 황영송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임실행위위원회에서는 오는 10월 27일 열리는 뉴욕교협 정기총회를 앞두고 법규위원회(위원장 송병기 목사)가 수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세칙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법규위원회는 이날 정부회장 후보가 기존 재석 회의의 2/3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는 기준을 보다 완화시켜 정부회장 후보는 선거 당일 재석 회의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는 수정안을 내놓았고, 참석한 임실행위위원들의 동의와 제정으로 이번 정기총회에 상정됐다. 또 법규위원회는 이와 함께 "회장 후

보는 현 부회장이 출마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임실행위원들은 회원들의 자유로운 후보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한동안 논의가 이어졌다. 결국 이 안건은 법규위원회가 정기총회 전까지 연구, 수정 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임실행위위원회에서는 총 6개의 신규 가입 교회를 받았다. 그 6개 교회는 라이프라인장로교회(담임 유태웅 목사), 주님의식탁교회(담임 이종선 목사), 좋은목자교회(담임 김신영 목사), 주님 사랑선교회(담임 박현숙 목사), 뉴욕열린교회(담임 장현숙 목사), 뉴욕한마음교회(담임 정양숙 목사)다.

김대원 기자

지역사회와 차세대 섬기기 위한 샘터창의스쿨 열린다

유대인 영재교육 게임식 교구 '오르다', 창작미술 프로젝트 기타교실, 청소년 자원봉사 등 양질의 프로그램 무료로 제공



샘터창의스쿨 강사와 스태프들. 왼쪽부터 양해규 목사, 서현정 사모, 임정하 집사, 이슬 자매, 백지혜 사모, 신현우 목사.

애틀랜타 지역의 샘터교회(담임 신현우 목사)에서 지역사회와 차세대를 섬기기 위한 '샘터창의스쿨'을 연다. 14일(주일) 개강해 10주간 진행되는 샘터창의스쿨에는 유대인 영재교육 게임식 교구인 '오르다', 창작미술(면화)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간식비와 재료비가 포함된 등록비 40불을 받는다. '배움의 샘터', '지혜의 샘터', '창의의 샘터'를 모토로 차세대를 향한 사랑과 비전을 이뤄가고자 시작되는 '샘터창의스쿨'은 차세대인 아동,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인생의 비전을 아름답게 그려주는 마르지 않는 샘터가 되기를 바라며 작지만 의미있는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신현우 목사는 "샘터교회의 비전 중 하나가 차세대를 위한 비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동시에 교회가 작다 보니 새로운 사역을 시도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던 중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예외가 없다는 마음을 주셨고, 비록 적은 성도가 모였지만 하나님 앞에 생동감 있게 사역하는 교회,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자 샘터창의스쿨을 개강하게 됐다"고 동기를 설명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오르다'를 꼽을 수 있는데, 이미 한국에서는 자녀들의 창의성 및 논리,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게임식 교육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히브리어로는 '지혜의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김수경 강사는 한국에서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유대민족에게 전해 내

려오는 철학을 교육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오르다사에서 개발된 교육용 게임으로 와이즈만 과학 연구소의 교육학자, 철학자, 미술학자, 심리학자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20년 간 연구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소개했다. 신 목사는 "오르다는 한 번 게임에 몰두하면 쉽게 그만두기 힘들만큼 재미있고 도전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게임 가운데 자연스럽게 논리,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며 이를 평생 습관화하고 실제 삶에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설명하면서 "영역별, 발달 단계별로 구성된 아동의 개인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에서 교회와 일반 구제기관을 연결해 다양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교육을 전문적으로 해 오던 양해규 목사가 매니저를 맡게 될 '청소년 자원봉사' 역시 기대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단순히 시간이나 점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신력있는 구제기관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단계적으로도 장애인 봉사단체나 양로원 등에서의 봉사활동도 계획돼 있다. 또한 샘터교회 청년들이 함께 해 자연스럽게 청소년들과 멘토-멘티 관계가 맺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샘터창의스쿨은 매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되며, 등록비 완납에 의한 선착순 마감이다. 또한 비교인에게 우선등록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 백지혜 사모(678-559-8593, facebook.com/samterchurch)로 하면 된다. 박현희 기자

O.C./앨버틴 지역

<p>오병익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p> <p>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p> <p>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p>	<p>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여래(평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p> <p>김영길 담임목사</p> <p>금요일양 오후 7:30 경애인예배 오전 11:00 영아장년부 오전 9:00, 11:00 새벽기도회 매일 5:30</p> <p>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p> <p>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p> <p>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p> <p>민경덕 담임목사</p> <p>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헤어지는 교회</p> <p>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un.org</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p> <p>3부예배 오전 11:00</p> <p>4부(청년)예배 오후 1:00</p> <p>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p> <p>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p>
<p>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p> <p>매일새벽예배 오전5:30 Youth 예배 오전10:30 EM예배 오후 2:30</p> <p>박용덕 담임목사</p> <p>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기록한 MVP 공동체</p> <p>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p>	<p>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평야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p> <p>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기도 저녁 8:00 분당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p> <p>허규담 담임목사</p> <p>놀익연합감리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p> <p>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7 / usa8291@gmail.com</p>
<p>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p> <p>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이서 담임목사</p> <p>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p> <p>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org</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p> <p>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p> <p>김한요 담임목사</p> <p>베델한인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p> <p>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p>
<p>주일예배 오전 8시,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계시록) 금요일 오후 7시(계시록 7교회)</p> <p>남상국 담임목사</p> <p>오픈바이블교회 OPEN BIBLE CHURCH</p> <p>800 S.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Harbor + South) T. (949)285-0619 / E. obchurch7@gmail.com</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0:00(분당) 3부예배 오전 12:30(FC제물)</p> <p>EM예배 오전 10:00(FC제물) 오후 12:30(분당) 수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 6:00(토)</p> <p>김민재 담임목사</p> <p>세리토스장로교회</p> <p>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p.org</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p> <p>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아예배 (수) 오후 7:30 성령집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p> <p>김상준 담임목사</p> <p>엘바인 침례교회</p> <p>5101 Walnut Ave., Irvine, CA92604 T. (949)857-9425 / F.(949)857-9242</p>	<p>주일예배 오전 10:45 EM평야예배 오후 12:45 금요양회예배 오후 7:30</p> <p>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벽예배 오전 5:30</p> <p>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p> <p>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교회 사무실)</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p> <p>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아예배 (수) 오후 7:30 성령집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p> <p>김삼도 목사</p> <p>과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p> <p>엘바인 할렐루야교회</p> <p>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949) 305-3951</p>	<p>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p> <p>(매월 S.D.F, Power minister)</p> <p>지사론 담임목사</p> <p>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생명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랑과 생명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인도되는 선교센터</p> <p>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p>
<p>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p> <p>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p> <p>우대권 담임목사</p> <p>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p> <p>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p>	<p>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p> <p>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한여래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p> <p>엄영민 담임목사</p> <p>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영리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p> <p>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p>
<p>주일예배 오후 1:00(분당) E.M.예배 오후 1:00 (pre-school)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목요성령집회 오후 7:30</p> <p>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스라엘 세미나: 매달 첫째주 (토) 오전 10:00</p> <p>최국현 담임목사</p> <p>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말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밀진료</p> <p>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351-0124(Cell), (562)475-4323(Church)</p>	<p>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p> <p>새벽예배 월일 오전 06: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일예배 오후 08:00</p> <p>한기홍 담임목사</p> <p>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찬양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남성수 담임목사</p> <p>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p> <p>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coc.com</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목성예배 오후 2: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월요 중보예배 오후 7:30</p> <p>수요 예배 오후 7: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금요일아침예배 오후 8:00 토요 EM예배 오후 7:30</p> <p>앤드류 김 담임목사</p> <p>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p> <p>18842 Teller Ave. Irvine, CA9261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3부: 오후 1:30</p> <p>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금)</p> <p>주혁로 담임목사</p> <p>주님의 빛 교회</p> <p>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 670-6700</p>	<p>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p> <p>김철민 장로</p> <p>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p> <p>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p>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터링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www.SuperMirapharm.com

투병생활이 필요없는 치유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미라팜-22 MIRAPHARM-22

22세기형 생명공학적인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2014년 한국은 면역조절제 개발이 국가적 신약개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생물학적 면역조절제 개발 프로젝트이다. 인간의 질병의 근본 원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목표이다. 기존 면역조절제(화학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생명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서 국가적인 개발 과제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본사는 이런 첨단 의약품제조기술을 25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하여 생체응답 조절작용제로서의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를 미국 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고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FDA에 NDC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 됨
일반의약품 등록번호 NDC No.: 58912-2001-1



FDA 직접 확인해보기
NDC Number를 선택하시고
58912-2001-1 로 검색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MIRA PHARM -22

Mirapharm-22는
Miracle Pharmacy(기적의 약)의 합성어이며
22는 22세기형 첨단신약을 뜻합니다.



90cap. 300mg/cap. Made in USA

100% 천연 물질로 만들었으며 25년간의 연구와 비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1년간의 임상 끝에 미국 FDA에 Human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됨
- ◆ FDA 등록 연구소에서 성분 분석 테스트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명기되어 있음.
- ◆ 친환경 100% 천연 유기물질을 핵심 재료로 생명공학적인 공법으로 특수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첨단 천연의약품인 면역증강 및 면역조절제
- ◆ 면역증강제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자기면역질환들을 면역조절제로써 자가치유할 수 있는 첨단 의약품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탁월한 효능을 입증받아 일반의약품 NDC OTC Drug로 등록되었으며, 수많은 난치병들 중 대부분은 자기면역질환으로써 현존하는 약으로는 치료가 어렵지만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는 이런 난치병들을 자기와 비자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작용, 항원특이적 또는 비특이적으로 면역반응을 증강시켜 면역계에 작용하여 면역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면역을 스스로 조절해 주면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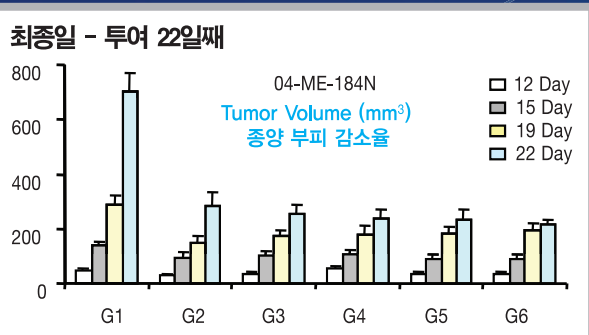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형사례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암 예방 및 치료제인 미라팜-22가 화학 항암제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검증된 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군 (mg/kg)	Control 무치료	Doxorubisin (2) 화학항암제	Mirapharm-22 (75) 미라팜-22	Mirapharm-22 (15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사전 예방처리
22일째 (최종일)	704.6 ±67.2	285.6 ±50.6	251.9 ±36.3	235.3 ±34.6	232.1 ±38.5	214.2 ±20.5
22일째의 억제율 %	0	59.5	64.3	66.6	67.1	69.6
	G1	G2	G3	G4	G5	G6

●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월등히 뛰어난 암 부위 감소율의 결과로 천연 치료제 미라팜-22의 비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은 추후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옆의 도표들은 각각 두 차례 정부 인가 연구소에서 비임상 테스트를 통해 나온 결과이며 미라팜-22를 더 많이 복용했을 때에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미라팜-22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난치병 및 각종 암치료제로 더욱 유명해진 천연 미라팜-22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시작하면서 미국내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이 제품을 판매 및 수출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1. 각 지역 총판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2. 각 지역의 도시의 대리점을 운영하실 분
3. 현재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
4. 건강보조식품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
5. 의약품 세일즈 전문업을 하시는 분
6. 건강보조 제품 세일즈를 하시는 분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L.A. 본 점 (213)365-2100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사우디,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기독교인 27명 체포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27명의 기독교인들이 체포당했다. 이 가운데는 성인 남녀를 비롯해 어린 아이도 포함돼 있다. 이번 사건은 한 시민이 이들이 수상한 행동을 한다고 신고하면서 촉발됐다.

현지 언론 사우디 가제트(Saudi Gazette)는 "카프지(Khafji)에 위치한 한 가정에 들이닥친 종교경찰(Commission for the Promotion of Virtue and Prevention of Vice, 하이아)들이, 방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던 이들을 발견했다"고 지난 5일(현지시각) 전했다. 성경책과 예배에 사용된 악기들 역시 압수됐다.

P.J. 미디어의 패트릭 풀(Patrick Poole)은 "이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학대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P.J. 미디어의 프랭크 울프(Frank Wolf) 대변인은 "미국이,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단속과 체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울프 대변인은 사우디 당국이 역사적으로 이슬람 외의 종교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언급하면서, "지난 1991년 '사막의 폭풍우' 작전을 진행할 당시에도 미군들이 십자가를 지니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폭스뉴스가 워싱턴에 있는 주미 사우디 대사관과 인터뷰

를 시도했으나, 그곳의 대변인은 "기독교인들의 체포와 관련해 어떤 언급도 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교인 수니파 이슬람을 제외한 모든 종교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슬람 외의 어떤 종교행위도 금지된다.

2004년과 2011년에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에 의해 특별관심국으로 지정된 사우디아라비아는, 헌법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있다.

강혜진 기자

캠퍼스 선교단체에

'비기독교인 리더' 강요하는 美 대학

IVF,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23개 캠퍼스에서 피해 입어



IVF의 학생들이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습 ©InterVarsity USA

국제적 캠퍼스 선교단체인 IV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가 비기독교인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대학교 측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학교가 인정한 정식 선교단체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10일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CSU)의 23개 캠퍼스에서 IVF가 더 이상 활동을 승인받을 수 없게 되었다며, 이는 이 단체가 리더를 반드시 기독교인으로 뽑는다는 방침을 고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학 측은 "IVF의 리더십 관련 정책은 우리 대학이 따르고 있는 주의 차별 금지 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학 공공 정책 담당자 마이크 얼렌캠프는 "단체가 정식 활동 승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차별 금지 정책에 찬성 서명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IVF에 1년의 기간을 주었지만 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IVF는 CSU 외에도 40여 개의 캠퍼스들에서 차별 금지 정책에 동의할 것을 강요당해 왔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활동을 허가받지 못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2010년 미국 연방법원이 "공립학교들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단체가 차별적인 신앙에 근거해 있다면 그 단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 내린 이래로 계속되어 왔다.

IVF의 경우 멤버십은 기존 신앙에 상관 없이 모든 학생

들에게 부여되지만, 리더는 반드시 "교리적 기반"과 "성경의 무오함에 대한 믿음"을 증명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IVF는 동성애자가 리더가 되는 것도 금지해 왔다.

IVF 그렉 제이오 대변인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된 영상 성명에서 "CSU의 결정은 이 지역 지부들이 캠퍼스 내 모임 공간과 교내 종교 단체 박람회 참가 권한, 기타 캠퍼스에서의 시설 사용 권리 등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로 인해서 선교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부별로 2만 달러 가량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IVF가 차별 금지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아 불이익을 겪게 된 반면 다른 많은 종교단체들은 이 정책에 동의 서명을 하고 있으며 유대교, 가톨릭, 이슬람뿐 아니라 일부 주류 개신교단 소속의 단체들 역시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 최대 유대교 학생 선교단체인 힐렐(Hillel)은 이미 이러한 정책에 기반해 일부 지부들의 경우, 비유대교인을 리더로 임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IVF 측은 이러한 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복음과 기독교 신앙의 진실성을 타협하는 것"이라며, "기독교적 학생들을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세상을 바꾸는 자들로 성장시키기 위한 우리의 헌신과 노력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손현정 기자

릭 워렌 목사가 전하는 "기회에서 유익을 얻는 방법"

더 좋고 큰 것을 위해 '네'와 '아니오' 잘 해야



릭 워렌 목사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새들백교회)가 40년에 걸친 사역을 통해 깨닫게 된 '기회에서 유익을 얻는 방법'을 공개했다.

워렌 목사는 지난 7일 주일 설교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질문 몇 가지를 던졌다.

워렌 목사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본다"면서 자신도 젊었을 때에는 기회를 잡는 데 서툴렀고, 많은 기회를 놓쳤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지금은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법을 배웠고, 더 큰 것을 위해 '네'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워렌 목사는 "주변에 기회들은 많이 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를 알고 살피고 느끼고 붙잡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기회를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두신 계획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렌 목사에 따르면, 기회를 잡고 관리하는 첫 번째 단계는 "중요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그는 "성공의 시작점은 여러분의 삶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제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난 삶에 9명의 멘토를 두고 있었다. 이 가운데 유명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현대 미국 경영의 창시자인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 박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드러커 박사는 '일부를 정리하지 않고는 내 스케줄에 무언가를 더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했다.

워렌 목사는 이어 모든 기회를 다 잡아서 안 된다고 조언했다. 기회의 일부는 유혹, 방해, 혹은 우회하는 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기회는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까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사야 하는 것

은 아닌 것과 같다.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만을 취하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내가 알아 할 것이 무엇이고, 이를 누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열정과 비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성경에서도 이를 어려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관련이 되는 이들에게 도움과 상담을 구하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올바른 기회는 개인의 목표와 부르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워렌 목사는 "여러분은 삶 가운데 평안을 원하며, 스트레스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예언이나 압박, 권위, 혹은 대중들에 의한 것이 아닌, 목적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회는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을 때 찾아오지만, 또한 우리들은 항상 준비되어야 한다. 그는 "여러분은 다음 주에 평생을 기다린 기회를 만날 수도 있다. 여러분이 20세, 40세, 혹은 60세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기회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나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놓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렌 목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3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24시간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과거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자리에 여러분을 두실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2015년 달력 할인행사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9월19일 까지 마감합니다.
 빨리 주문 하셔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디자인의 달력을 준비하세요.
 미디어 선교에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탐미디어에서 2015년 달력제작으로 귀 교회와 단체를 섬기고자 합니다.
 특별할인 품목을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셔서 양질의 달력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단체위에 더욱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www.topmediausa.com
 다양한 디자인 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벽걸이형 \$ 2.75 부터 (100 Min)

탁상용 \$ 3.00 부터 (100 Min)

차량용 Special Price

• 달력뿐 아니라 목회와 선교사역을 위한 모든 미디어용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전도용 설교, 음악시디, 세미나, 신학교교재용 오디오북, 전도/홍보용 물티슈 각종 인쇄(명함, 카달로그, 주보, 헌금봉투, 각종 포스터, 현수막) 교회, 단체 로고 디자인, 실내외 차량용 사인, 티셔츠, 수건인쇄, 각종 판촉물)

TOPMEDIAUSA.COM • Call : 323.265.0244 • 3170 East 11th St. LA, CA 90023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200명의 미국, 인디언 심마니 협력 업체

100% 미국 야생 산삼

HQ
山
蔘

가을 햇산삼이 나왔어요

근 뿌리 근 뿌리
정성스럽게 캐셨습니다!

미국 야생 산삼
1 파운드 = \$800~\$1,300
+ 특별 선물 무료 증정

HQ구연산과 HQ천연미네랄 회색소금(\$200-\$300상당)



예쁜 선물 상자도 있습니다.



산삼의 2차 가격파괴,
산삼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정착시킨 정직한 업체입니다.
산삼의 품질은 최고로 가격은 최저로 해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면역력 · 자연치유력
타 업소보다 2-3배 싼 가격

NY, WI, VA, NC주 최상급 북부 최상급 효능 햇산삼이 매주 두번씩 들어옵니다.
주정부 발행 진품 인증서 첨부된 100% 살아있는 야생 산삼입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있는 그대로 들여와 한 달 내에 전량 판매됩니다.
인삼, 홍삼이 안맞는 분들도 미국 산삼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산삼복용법은 씹어서나 달여서 드시도록 상세 소책자를 드립니다.

산삼의 25가지 효능

임상실험 30년 노하우를 전수받아 건강상태에 따라 각각 상담해 드립니다

- 1.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
- 2. 당뇨에 효과가 탁월함을 임상실험으로 입증되었음
- 3. 심장을 강하게 하며 심매계의 악리작용을 강화한다
- 4. 위장병 원인이 되는 위산과 펩신의 분비물을 억제함
- 5. 미국 산삼은 고혈압, 저혈압의 증세를 정상화 시킴
- 6. 알레르기성 체질을 개선시킨다(비염치료 포함)
- 7. 정력을 증강시키며 남녀 불임환자에게 효과가 좋다
- 8. 각종 간질환(간염, 간경변, 간암 등)회복에 탁월함
- 9. 성인병 예방은 물론 갱년기 장애 해소에 탁월함
- 10. 두뇌 신경세포를 촉진시켜서 머리가 총명해진다
- 11.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며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
- 12. 망막혈관을 세동맥을 선명하게 해 눈을 맑게 한다
- 13.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스트레스를 없애준다
- 14. 루머티즘, 만성관절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
- 15. 만성피로나 허체무력감에 매우 뛰어난 약성효과
- 16. 체내 독기 제거로 피부를 맑게하며 종기를 식혀줌
- 17. 노화물질의 축적을 억제해 노화방지효능이 크다
- 18. 생명력, 저항력이 증가해 알콜중독과 숙취에 탁월
- 19. 부인병(냉증, 월경과다, 자궁출혈)에 탁월한 효능
- 20. 폐기능 등 호흡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함
- 21. 신경과민, 신경쇠약과 불면증에 효능이 있다
- 22. 모든 질병의 빠른 회복과 원기를 보하고 돌아준다
- 23. 추위를 타지 않으며 손과 발이 따뜻해 진다
- 24. 면역력을 극대화시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탁월함
- 25. 성인병 예방은 물론 갱년기 장애 해소에 탁월함

건강상담 및 문의: Dr. 최



전속모델 탤런트 **박영지**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최덕성 박사의 특별기고] 교황 프란치스코께 묻는다 ④ 교황무오교리

교황이 무오(無誤)하다고 믿는 로마가톨릭교회(2)

3. 역사의 반증

독일 튀빙겐대학교 한스 쿡 교수(1929-)는 로마가톨릭교회의 교회론과 교황무오교리를 비판하다가 가톨릭 신학교수직을 박탈당했다. 쿡은 이 교리가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했다. 교황, 주교단, 공의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보존하고 그릇되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 오류 없는 교도권을 부여받았다는 교리의 증명 불가능성을 입증했다.

쿡의 <과연 무오인가?(1970)>는 로마교회의 역사에 나타난 오류들, 교황제도의 폐해, 교황, 공의회, 주교단이 저지른 오류들을 소개한다. 로마가톨릭교회 바깥에서 이 교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안에서도 의심스럽고 모호한 교리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교황무오교리의 오류, 곧 '교황의 교도직 수행의 오류 없음 교리'의 불합리하고 어두운 면들을 아래와 같이 열거한다(Hans Kung, Infallible?, 1994, 27 이하).

제9세기의 교황 니콜라오 1세(858-867 재위)가 동-서방교회 분열의 책임자로 매도된 포티우스를 파문한 것은 오류이다. 이 파문을 추진한 제4차 콘스탄티노플공의회(869-870)의 결정은 오류이다. 1054년에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미카엘 세룰라리우스를 파문하고 정교회를 일방적으로 정죄한 일도 교회(교황, 공의회, 주교단)의 오류이다.

교회의 교도권을 가진 자들(교황, 주교)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차례 타협을 했다. 이들이 가르침을 바꾼 것도 오류이다. 교황이 갈릴레오 갈릴레이(1564-1642)를 단죄한 사건은 신앙적 오류이다.

쿡은 교회가 인도, 중국, 일본에서 새로운 형태의 예배 형식과 조상제례를 둘러싼 갈등을 비난하고 정죄한 바, 이것은 로마가톨릭 선교를 실패하게 한 큰 규모의 실수였다고 말한다.

제1차 바티칸공의회 때까지 로마가 시행한 정죄 또는 출교 결정권은, 교황의 중세기적 지상통치권을 떠받쳐 온 수단이었다. 교회는 20세기 초 성경 각 권 저저들에 대한 비평-역사 방법론을 사용한 신학자들을 정죄했다.

문학 장르 연구를 단죄했다. 교회의 현대적 발전에 이바지한 학자들을 처벌했다. 금서 목록을 만들고 내용을 정밀 조사했다. 모두 교황의 그릇된 결정이다. 이 과정에서 신학은 교권을 도왔고, 교권은 신학에 도움을 주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들 가운데 하나가 교황무오교리이다.

교황들이 회칙과 교령을 발미로 많은 신학자들을 처단한 일은 교황무오교리가 성립 불가능을 반증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3세기에 프랑크 지방 주교관의 문서고에서 850년경에 발견된 '이시도리아 법'이라는 위서(偽書)를 가지고 로마교회 주교의 수위권(Supremacy)을 증명하는 데 사용했다.

교황무오교리가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입증한 사건이다. 이 까짜 문서는 교황 수위권에 관한 내용이다. 교황이 홀로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고, 최고의 판단자이며, 교황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주교를 파면할 수 없으며, 전 세계에 권한을 행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공 피임법을 불허한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생명(1968)'은 교황무오교리가 성립 불가능을 입증한다. 교황청은 시기를 조절하는 자연적 피임법이 '자연법'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허용하면서도, 인공적 수단을 사용하는 피임법은 불허했다. 교황의 가르침은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을 구분하는 바,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스토아주의-고행주의에 바탕을 둔 중세기 발상이며, 성(性)에 대한 인간의 생물학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인의 경험과 사상에 불일치한다. 기독교 진리가 아니라 마니교적 유산이다. 지금부터 약 350년 전의 갈릴레오 정죄 사건의 재현이다.

교황청이 인공 피임금지령을 명하면서 이를 교황의 그르칠 수 없는 특별한 직무(magisterium extraordinarium)에 호소하지 않고, 그르칠 수 있는 일상적 직무(magisterium ordinarium)의 권위로 지시한 것도 오류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무죄한 자를 살해하는 행위를 잘못이라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특별한 직무에 속한다. 그러나 산아제한 문제는 일상적 직무이다. 이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헌장' 제25조가 명시하는 주교직의 특별한 직무에 대한 정의와 불



최 덕 성 박사
브니엘신학교 총장

일치한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헌장'은 "각각의 주교들이 무류성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제25항)"라고 한다. 주교들이 사도들의 계승자라면, 그리고 교황무오교리가 정당하다면, 그들은 개인적으로 그것을 즐기고,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25항은 "베드로의 후계자와 친교의 유대를 보존하면서 신앙과 도덕의 사항들을 유권적으로 가르치는 주교들이 하나의 의견을 확정적으로 고수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오류 없이 선포하는 것이다"는 진술로 연결된다. 인공적 피임금지가 정당화되려면 자연법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의 말씀(성경)에 부합해야 한다.

성경은 로마가톨릭교회에서 사실상 '장식 기능의 역할'을 할 뿐이다. 모세오경에 자연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논리로 산아제한을 금지한 회칙은 성경이 주장하는 결혼의 존엄성과 불일치한다.

제1차 바티칸공의회가 선포한 교황무오교리는 신학적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신빙성이 없다. 강압적 분위기에서 중세기적 교황 권력에 매력을 느끼며 옛 로마가톨릭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열정을 가진 교황 비오 9세가 정치적 동기로 결정했다. 공의회가 모이기 전, 반계몽주의와 반합리주의적 낭만주의 정신을 가진 복고파 운동이 광범위하게 교회와 가톨릭 교회론을 지배하고 있었다. 프랑크 혁명과 나폴레옹 통치 동안 혼란을 겪은 유럽은 평화와 질서를 바랐고, 정치적·종교적 안정을 유지한 기독교 중세기를 그리워했다. 교황보다 그것을 더 그리워한 사람이 있었겠는가?

당시 로마가톨릭교회 지도자들은 전통주의에 강한 매력을 느꼈다. 성직주의는 반성직주의를 부추겼다. 성직자들은 신학자들의 과학 방법론 도입과 쇠신파 운동에 변증

적 자기 방어 자세로 대응했다. 교황무오교리는 이러한 강압적·정치적 풍토에서 만들어졌으며, 교황이 교도직을 잘못 사용한 결과이다.

4. 성경의 반증

쿡은 교황무오교리가 성경이 뒷받침하지 않음을 아래와 같이 서술한다(Hans Kung, Infallible?, 63 이하).

첫째, 교황무오교리는 성경이 보증하지 않는다. 교황무오교리는 '교황의 그르칠 수 없는 교도직'이라는 가정에 근거해 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석한 교황, 주교들, 신학자들은 성경이 아니라 당대 일반 문화에 적합한 이성적 표본에 따랐다. 로마가톨릭교회도 개신교회처럼 성경을 신앙의 규범으로 여긴다. 그러나 성경이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통-성전(聖傳)이 제공한다고 본다.

로마가톨릭교회는 전통을 계시에서 파생된 성경과 동등한 계시 영역으로 간주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경, 전통, 교도권의 불가분의 관계를 말한다. 공의회는 교회의 갱신을 위한 궁극적인 규범, 수위적 규범(supreme norm)이 무엇인지 논의했고, 새로운 공적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제1차 바티칸공의회와 마찬가지로 제2차 바티칸공의회도 교황무오교리를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았다. 성경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도, 밝히지도 않았다.

둘째, 교황무오교리는 로마 감독을 포함한 주교들만이 사도직의 계승자들이라는 가정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들의 무오성을 주장하지 않았다. 사도단인든 사도 개인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누구도 오류 불가능성을 말한 바 없다. 사도들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설교하는 자로 보증을 받았다. 그들은 무오성을 선언할 만큼 영웅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들, 연약한 인간, 보배를 가진 질 그릇(고후 4:7),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요 15:5)라고 했다.

복음서들은 베드로, 요한,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 전과 후에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인간적이며, 실수 많은 사람이라는 특징을 예증(例證)으로 삼고 있다. 베드로는 실수가 많았다. 신속하게 해야 할 사도적 임무 수행(mission)을 지체하게 하는 실수를 범했다.

사도들은 인간 이상이 아니었다. 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안을 준다. 바울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형제들에게 위로와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도들(엨 2:20; 고전 12:28; 계 21:14)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인 의미에서나 직무상으로도 자신들의 무오성을 말한 바 없다. 실수나 오류의 불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없다.

셋째, 교황무오교리는 로마교회 주교가 사도직의 계승자라는 교리에 기초한 바, 이 주장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주교들이 사도들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의미의 계승자들이라는 근거가 없다.

넷째, 교황, 주교가 교회의 교도직임을 맡은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교리는 성경적으로 입증 불가능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 받았다. 바울은 사도, 선지자, 교사를 통합하는 단일화 경향을 공박했다(고전 12: 28).

공의회가 교황무오교리를 뒷받침하려고 내세운 성경구절들은 로마가 베드로 교구의 법적 수위권의 근거로 삼는 데 무리하게 사용해진 본문들이다. 성경은 교황의 수위권(Supremacy)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인용되는 성경구절 가운데 어느 하나도 베드로의 계승자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로마교회의 주교직, 교황직 또는 교황의 무오성을 언급하지 않는다.

성경은 교황무오교리의 근거인 전통-성전(聖傳) 교리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성경은 오로지 복음의 영(靈) 안에서 이루어진 목회와 교도(敎導) 활동의 연속성을 말할 뿐이다. 로마교회의 주교가 아니라 베드로 개인의 영적·카리스마적 사역을 언급한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문서 중 어느 것도 교황무오성을 말하지 않는다. 로마가톨릭교회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황무오교리를 확신시킨 로마가톨릭 신학자는 아무도 없다.

쿡의 비판을 조리 있게 반박한 신학자는 없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대학교 칼 라너 교수가 "쿡이 과연 로마가톨릭교회 신자인지 의심스럽다(Karl Rahner, 'Kritik an Hans Kung,' Stimmen der Zeit 1970, 12)"고 공격한 비난을 한 정도였다. 쿡은 신학교수직을 해임당했으나 사제직을 유지하고 있다. (계속)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오랜 시간 비염과 코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경산한외과병원

3030W, Olympic Blvd., Suite 202, LA, CA 90006(삼호관광물 2층)
류재규 원장(경산한외과 대학교수) T.(213)380-0853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크리스천 청년 필독

하정원 | 평단 | 28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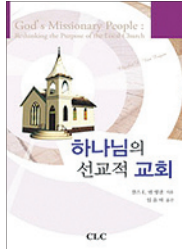
‘영화 설교’로 유명한 저자가 청년들이 올바른 신앙관과 관점을 갖도록 이끌 책 20권을 소개한다. 교리서부터 영성, 간증 등을 망라하고, 김세운부터 이어령까지, 헨리 나우웬부터 C. S. 루이스와 유진 피터슨까지 다양한 기독교 저자들의 저서가 실렸다. 한비아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나 미치 앨봄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처럼 일반 서적들도 있다.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찰스 E. 벤 영겐 | CLC | 368쪽

교회론과 성경, 역사적 관점에서 지역교회를 조명하고, 교회의 본질이 선교적 사명에 있음과 함께 지역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비전을 이룰 것인가를 제시한다. 저자는 성경적·역사적 교회에 대해 1960년대부터 쓰인 선교학자들의 글들을 집대성한 자료를 통해,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찾아 나간다.



버럭하는 남편 물어두는 아내

김형기 | 참해 | 3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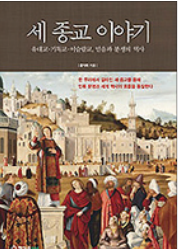
다국적기업 재무최고책임자로 근무하다 실직 후 무작정 떠난 미국 여행길에서 DTS훈련을 받게 된 저자가, 부부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배우자 탓이 아닌, 각자 내면의 상처와 부정적 자아상이 문제라는 것.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지만, 양가 어른까지 3명 대 3명의 충돌일 수 있으므로 ‘원 가족 들여다 보기’부터 시작해 보자고 권한다.



세 종교 이야기

홍익희 | 행성:B일세 | 484쪽

<유대인 이야기>를 쓴 저자가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등 세 종교를 파헤친다. 세 종교의 시작을 연 아브라함의 뿌리인 고대 수메르 문명부터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한 로마제국, 십자군 전쟁과 유대교 박해가 행해진 중세 암흑기를 거쳐, 홀로코스트와 팔레스타인 분쟁까지 세계사를 아우른 후, 평화공존의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REVIEW

“고난은 위장된 복이자 삶의 인터체인지”

찬양사역자 전용대 목사, <버팀목> 펴내

장애의 시련을 딛고 복음성가 가수로 거듭나, ‘주여, 이 죄인이’, ‘꼭바로 보고 싶어요’, ‘주를 처음 만난 날’ 등을 부르며 국내외 수많은 찬양집회를 인도해 온 전용대 목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버팀목>을 펴냈다. 전용대 목사는 “이 땅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어서 출간을 결심했다”고 말한다. 요즘 다들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어렸을 때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좀 더 나아졌지만, 정신적·영적 문제는 더 어려워졌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우울증·불면증·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자살

률은 높아가며,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혀 다른 길로 빠지는 사람도 많아졌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여전히 심하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장애인이 살아가기에 힘들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식당에서 돈 내고 밥을 먹고서도 ‘재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 수도 없이 직장에서 해고당했으며, 네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전용대 목사. 그러나, 그는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버거워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

를 주고, 장애인에게는 희망이 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방향을 안내해 주고 싶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가 만난 예수님을 알림으로써, 우리가 모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난 제 이야기가, 지금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소망합니다.” 책은 신인가수 선발대회에서 1등을 차지해 가수의 꿈을 안고 타향살이를 시작했지만 갑작스럽게 받은 소아마비 진단으로 절망했던 일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버팀목 | 전용대 마음지기 | 328쪽

인도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주는 찬양 사역자로 거듭나 전 세계를 누비는 현재의 모습까지 담고 있다. 전용대 목사는 책을 통해, 그리고

찬양을 통해 “고난은 위장된 복이요, 고난은 복의 통로이며, 고난은 인터체인지(interchange)”라고 고백하고 있다. 전용대 목사는 한국 초창기 복음성가 가수 중 한 명으로, 30년 넘게 사역하며 음반 28장을 출시했다. 한국복음성가협회 회장, 좋은소식찬양전문학교 학장, 법무부 교정위원, 한국가정사역연구소 이사, 찬양신문 사장, 워싱턴 코리아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아워드림교회 대표, 한국기독교음악저작권협회 이사와 극동방송 홍보대사 및 진행자, 영동프레이즈 지도목사 등을 맡고 있다. 이대웅 기자

Gold Finger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전화주시면 출장 주문, 가봉 완성 후 배달

Business hour 8:00am to 7:00pm
www.facebook.com/GoldFingerTailorLA

골드핑거

남녀맞춤, 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Byung Ho Kim (Kyung Sik)

- 법무부 직업훈련원 감독위원 역임
-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상임 이사
- 한국아트패션 회장
- 90년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 창작 최우수상
- 94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95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대릴 라사운영 1979-2000

맞춤 양복 이어서 좋습니다.

한울한울,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성경적 가정 원리, 그리스도인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말하는 가족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의미있는 만남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성경적 가정 원리', '그리스도인의 결혼생활'에 대한 '영혼의 의사' 마틴 로이드 존스(David Martyn Lloyd-Jones) 목사의 조언을 들어 보자.

◆ 자녀의 순종
자녀의 이치이자 태초의 원칙

로이드 존스 목사는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 교리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가족>이라는 책에는 특히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오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권면이 담겨 있다.

그는 기독교인뿐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가정생활에 대한 바울의 권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한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태초부터 삶의 기본 원칙이자 자연의 질서 가운데 하나로 존재해 왔다'고 말한다.

이는 당연한 일이자 '옳은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고, 인간의 본성에 깊이 뿌리 박힌 원리를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 이는 '약

속 있는 첫 계명'이기도 하다. 나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한층 깊은 진리를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가정의 붕괴가 곧 사회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이는 그가 이 글을 썼을 당시 영국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만 해도 각종 사건사고의 근원과 배경에 어그러지고 깨어진 가정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는 "가정의 개념과 가족 관계, 가정생활이 깨지면, 우리는 헌신의 목표를 잃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며 "하나님이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에 약속을 덧붙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듯 하다"고 말한다.

◆ 부모가 자녀들의 믿음을 방해할 경우

자녀는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은 그렇지 않을 경우, 즉각 갈등이 불거지게 돼 있다. 특히, 명절 때 멀리 떨어져 있던 부모를 오랜만에 만났을 경우도, 이러한 갈등 상황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단언한다. 사도 바울이 명한 '부모 공경'이 조건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만, 믿지 않는 부모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찬찬히 정리해야 한다.

단 한 가지 예외적인 상황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만일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말라며 그분에 대한 순종을 방해한다면,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며 "부모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강제로 옳지 못한 일을 하게 할 때도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전한다. 그는 "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며 "물론 마지막



가족 | 마틴 로이드 존스
생명의말씀사 | 152쪽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는 참고 견뎌야 하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태롭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도 일단 최대한 양보하고 화해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럴 경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를 염려해야지, 오히려 부모를 무시하면서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자신의 생각을 믿고 나갈 때는 항상 올바른 동기가 필요하고, 특히 기독교의 원리를 주장할 때는 성급한 태도나 상대방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마음에 힘을 얻고 올바른 판단을 유지하려면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 훈육, 극단의 조화

부모들에게, 로이드 존스 목사는 먼저 성경의 두 구절을 읽어준다. '매를 야기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잠 13:24)', '아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엡 6:4)'. 그는 "훈육의 문제는 바로 이 두 극단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우리의 문제는 양자의 균형을 유지하지 않고 극단에 치우치는 데서 파생한다"며 "그러나, 성경은 극단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딸바보'라는 신조어가 상징하듯 갈수록 엄격함보다는 자상함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 로이드 존스 목사의 '균형감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린아이가 좋아하

는 대로 놔둬야 한다', '은혜만 있으면 율법은 필요 없다',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면 사람은 바뀐다'는 현대의 신념들에 맞서, 그는 도처에서 훈육과 징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경'을 펼쳐놓는다. 하나님은 은혜 이전에 율법을 허락하셨고, 이 조항들을 여겨도 아무런 해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확한 징벌'을 가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도 그의 유일한 대응논리는 '성경'에 있다. 징벌을 가하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균형 있는 통제력을 유지하려면 ①자신의 감정을 먼저 다스리고 ②감정과 행동에 일관성이 필요하며 ③언제나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④자녀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며 ⑤인격적이고 지성적으로 훈육하고 ⑥합리적인 태도로 징벌하며 ⑦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인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교육을 학교에 떠넘기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생활
마틴 로이드 존스
생명의말씀사 | 288쪽

◆ 고부 갈등, 결국 부부의 사랑으로

즐거운 명절이지만, 며느리들은 피곤하다. 시키는 것 없어도 힘들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긴장과 부담으로 다가온다. 로이드 존스 목사가 '라디오 DJ'처럼 시시콜콜한 처방전을 건네는 것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5장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인의 결혼생활>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근본 원리를 제시해 준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결혼'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라는 교리를

토대로 설명한다.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 이 원리를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혼생활은 뼈격거리고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에베소서 본문에 나타난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 그 각각의 의무와 명령을 그리스도인의 복종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으로 설명하며 실제적 실천을 촉구해 나간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바울의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부부 간에 서로 인정하거나 좋아할 수 없는 것들 즉 여러 결함과 부족함, 실패와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며 서로 비판하고 다투고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신자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모든 결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된다." 믿지 않는 가정들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는 부부에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외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 관계를 맺는 것만 다를 뿐, 세상 사람들의 결혼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설교가로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1899-1981)는 영국 남웨일즈에서 태어나 26세에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촉망받던 '청년 의사'였으나, 하나님께서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심을 깨닫고 1927년 의학계를 떠나 목회에 헌신한다.

그는 성경의 권위가 훼손된 현대 교회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언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설교하는 것과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저서로 <부흥>, <영적 침체>, <설교와 설교자>, <복음주의란 무엇인가(이상 복있는사람)>, <요한복음·사도행전·로마서·에베소서 강해 시리즈> 등이 있다.

이대웅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루미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김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김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김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http://blog.daum.net/ysbla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35.5900 714.743.1000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인정되어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상의 6개월복용시 40%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명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에 인슐린 분비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당뇨병을 앓고자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3병 \$200
6병 \$372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당뇨병 가능 개선제 PRO-Z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계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미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십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션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잠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시온마켓 내 - **치우차우만두**

찐빵 고기만두 김치만두 야채만두 물만두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매달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인삼생리대 익모초생리대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트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각종보험취급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Genesis 2014 ALL IN STOCK @ \$36,120

Equus 2014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301 East 233rd St. Carson 90810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박사 과정 입학허가서 반납하고 “목양”의 길 선택한 사연은?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 비행기에서 “내 양을 먹이라”는 음성 들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주일이면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며 성가대 지휘를 하고 놀기 좋아하며 세상 편하게 살았다. 앞으로의 계획도 이전의 삶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사 학위를 받으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남부럽지 않게 사는 청사진을 갖고 있었다.

1991년 호주에서 WCC 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은 김종환 목사가 가려던 길의 방향을 트셨다. 여독에 지쳐 비행기 안에서 얼핏 잠이 든 그를 주님께서 깨우셨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하신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

박사 과정 입학허가서를 받아놓았던 그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입학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미련 없이 그 길을 내려왔다. 이어 바로 목회자의 길을 준비했다.

“비행기 안에서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을 경험했다. 자고 있는데 깨우시는 음성이 들렸다. 베드로에게 했던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것으로 제가 계획했던 길을 바꿔놓으셨다.”

1994년 1월 벤츄라감리교회 개척을 시작으로 2007년 나성한인감리교회를 거쳐 2010년 온마음교회를 개척하며 20년이 넘는 오랜 목회의 경험이 쌓였음에도 김종환 목사가 강조하는 것은 ‘목에 힘을 빼는 것’이다.

“교회가 수직적이기보다는 수평적인 교회가 되어야 교인들이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훨씬 더 많이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개인적으로는 직제가 없어도 되겠다고 생각한다. 목회자 같지 않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 영적 권위로 우뚝 선 목회자이고 싶진 않다. 삶을 함께 나누고, 신앙적인 부분과 말씀에 대해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 목사는 교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함께 영화도 보러 다니고, 박물관 견학도 하고, 어르신들과 일 년에 두 번씩 1박 2일 혹은 당일로 LA 근교로 여행도 다닌다.

그의 이러한 방향성은 교인들을 향한 설교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는 누가복음 14장을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칭함을 받은 자”란 ‘내가 선교를 이만큼 하니, 성경공부를 이만큼 하니 천국에 갈 것’이라 여기며 정작 삶으로 말씀을 좇아 살지 않는 자”라 경고했다.



김종환 목사는 어깨에 힘을 뺐, 교인들의 가족, 친구같은 목사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지금 많은 교회가 그런 식으로 루터 시대 때 면죄부를 팔았듯,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모른 채 신앙 생활의 형식만 갖춘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는 “생활 속에서 성경을 못 읽고, 성경을 못 찾아도 괜찮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가를 자문자답해 보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을 다 알진 못하더라도 복음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살려는 몸부림이 초대교회, 박해 시기에 많았다. 안락해지면 그런 마음이 줄어든다”며 “얼마나 말씀을 아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말씀대로 사느냐”라고 경고했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성찰해 봤다면 ‘아는 것’과 ‘따르는 것’이 천지차이임을 알 것이다. 혹자는 심지어 ‘사탄도 말씀을 안다(물론 전부는 아니다)’고 말한다. 삶과 신앙의 일치에 쉽지 않음을 그는 산상수훈을 예로 들어 강조했다.

“우리는 손에 보는 일이 익숙하지 않아 산상수훈을 지키기 쉽지 않다. ‘겉옷을 달라는 데 속옷까지 쥐라’, ‘오른 빵을 때리는 자에게 왼 빵을 대라’, ‘오 리를 가달라 하면 십 리까지 가줘라.’ 이 말씀을 외우라 하면 쉽게 외운다. 그러나 그렇게 사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한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살았다.”

그는 교회가 말씀을 알려주는 것까지만 할 뿐, 말씀의 실천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교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겨버린다고 교회 쇠신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따라서 그가 교인들에게 기대하는 바도 복잡하고 현학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

“예수님처럼 단순하고 순진한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는 갈릴리 출신 목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에 자신을 매는 이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십자가를 달게 지켰다. 그리스도의 운유함을 담은, 어깨에 힘주지 않는 교인으로 성장하길 기도한다.”

‘어깨에 힘주지 않아야 함’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자기를 영적 지도자로 여긴다고 영적 지도자가 되나? 아니다. 가족들이 인정을 해주어야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신앙에 본이 되는 자가 영적 지도자다.”

가정폭력의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했다.

“결혼하기 전, 카운슬링을 최소한 4번은 한다. 두 가지 경우 이혼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첫 번째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다. 그러나 한 번은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두 번째가 폭력이다. 가정 내 폭력은 일회적인 게 아니며 습관이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 폭력도 마찬가지다. 폭력 문제가 카운슬링으로도 고쳐지지 않으면 이혼해도 된다고 얘기한다. 가정 내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할 수 없다. 성서가 가르쳐 준 운유와 거리가 멀다.”

이외에도 마약, 알코올, 도박 등 중독 문제는 수치심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회가 이 문제에 더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수치스러울 수 있지만 상처를

드러내야 치료가 가능하다. 교회 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워 심각한 상태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교회에 알리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움을 받으며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때로는 갈수록 상처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 가정을 지키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렵다. 당사자도 고통스럽지만 자녀들도 광장하고 통스럽다. 사실 자녀는 표현을 못할 뿐이지 문제가 훨씬 장기간 지속된다. 성인이 되어서도, 결혼 후 부부관계를 이룬 후에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평생 그 아픔이 영향을 준다. 부모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는 건강한 교회의 기저에는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한다고, 가정의 외화가 개인의 심각한 고통을 부른다고 분석했다.

대가족제도가 유지되던 과거에는 그 개인을 돌보고 위로해 줄, 이혼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보호막과 완충장치 역할을 할 사람들이 있었으나 현대 핵가족제도 하에서는 가정이 붕괴되면 혼자 남는다. 그 고통은 마지막 길로 가게 한다.

폭력은 가정뿐 아니라 국가 간, 종교 간 분쟁의 커다란 화두다. 그는 종교다원주의에 동의하진 않지만 이슬람국가들의 호전적 포교활동에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종교다원주의 문제는 여호수아 시대에도 수없이 겪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종교적 마찰은 끊임없이 시대를 막론하고 빚어졌다. 종교이기주의가 있고, 그것을 넘어 종교

극단주의가 있다. 기독교 입장에서 종교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종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다른 길은 없다고 하였고 그 신념에 있어서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렇다고 다른 종교의 사원에 가서 그들이 불쾌해 할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슬람 선교활동에 대한 경각심은 가져야 하나 종교중요주의는 피해야 한다. 빵을 때리면 맞으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말아야 한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 한국인 중 크리스트를 가장 먼저 선택해 미국에 보내신 것을 ‘신의 한 수’라고 불렀다.

“대각성 운동 이후 미국 내 영적 흐름이 매우 약화됐다. 미국 안에는 광장히 많은 이민자 교회가 있다. 여기에는 우리를 통해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전략, 꺼져가는 선교의 불씨를 이어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 온마음교회는 2010년에 설립됐으며 “가정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인”이란 표어 아래 맑고 큰 것을 지양하는 대신 신앙으로 인한 참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며 “흠어져서 그리스도 인처럼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다.

주소 : 1733 N. New Hampshire Ave. Los Angeles, CA 90027

연락처 : 213-435-8738

홈페이지 : <http://cafe.net/laomec>

한 주디 기자



성악을 전공한 김미경 사모는 자작곡 “하늘길에서 부르는 노래”, “너는 구하러”를 담은 성가앨범을 최근 발표했다. “하늘길에서 부르는 노래”는 남편보다 먼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아내의 남편을 향한 마음을 담은 곡이다.

추나
수술 없이
척추 치료



장수 한의원

척추 교정

골반 교정

자세 교정

근육 교정

한방 특진 안내 >> **침, 뜸, 부항, 추나**

두통, 목, 오십견,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 신경통, 중풍,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신경쇠약, 신경통, 고혈압, 부인병, 갱년기 장애, 어린이 보약, 산전산후 보약

각종 보험 환영 직장상해보험
교통사고 및 스포츠사고 전문
HMO (이지초이스)
통증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한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뺀척추
- 엉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여 허리가 아프신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뚫!

통증 클리닉 : 중풍마비, 관절염, 두통, 신경통, 요통, 디스크, 허리, 목
성 클리닉 : (남성)전립선, 발기부전, 조루, 정력저하, (여성)불감증
한방 내과 : 감기, 천식, 고혈압, 당뇨, 위장병, 갑상성 질환, 변비, 알러지, 피부병, 비염
한방 부인과 : 불임증, 갱년기 장애, 월경불순, 산전 산후 보약
한방 정신과 : 치매 및 예방, 우울증, 불면증, 각종 스트레스 질환
한방 소아과 : 허약체질, 소아경기, 성장장애 및 보약 **기타** : 비만치료

이런분께
 ▶ 이곳 저곳을 다녀 봤지만 효과 못뵈신 분
 ▶ 지긋지긋한 고질병을 없애고 싶은 분
 ▶ 본인은 고통스럽고 불편하나 병원을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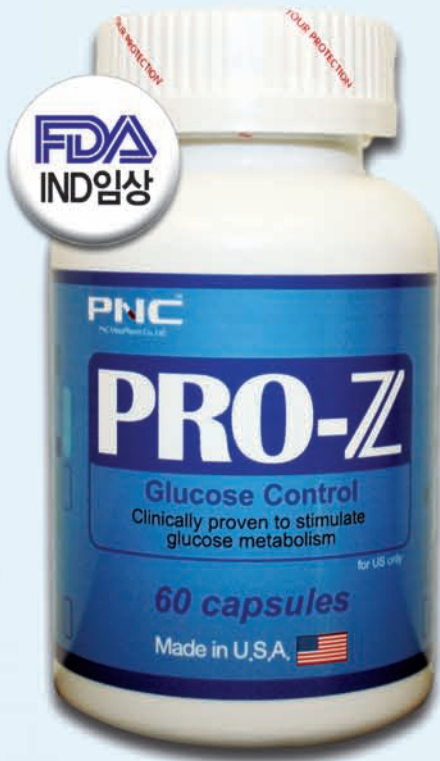
(213)381-7575 / Cell:(213)219-2739

352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월-금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2시 (예약 하신분에 한해서 밤 10시까지 진료)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Special Price

✓ 한국 30만명 판매 ✓ 미국 출시 기념 SALE

1병 \$76 3병 \$200 6병 \$372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에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아반디아와 액토스는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아반디아는 2010년 말에 판매가 중지되었고, 액토스는 2011년 상반기에 프랑스와 독일 유럽 전역으로 판매금지가 확산 됐습니다. 중앙일보 2014년 5월 15일 경제 3면에서 액토스를 복용한 한인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당뇨약은 혈당을 낮출 수 있으나 각종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 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병원 2곳에서는 당뇨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sensitivity)에 깊게 관련된 사실을 주목하여 Zinc Metabolism을 활용한 신 합성물질 프로지를 개발하였습니다.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2알을 6달 정도 복용 후에 아침 당 수치가 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짐. 몸이 부어 걷기 불편했는데 부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졌습니다
- 김OO 장로 (당뇨 10년)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4개월간 복용하니 아침 당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이 7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니 뼈밖에 안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이것저것 잘 먹으니 몸이 살이 붓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 최OO 목사 (당뇨 30년)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 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4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처럼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 이OO 집사 (전립선)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g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 (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US V. 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이며, 현재 마지막 3차 임상시험 진행이후 상용화 단계인 신약개발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과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g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우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 엘바인점 : 714-818-2014
5331 University Dr. #C Irvine, CA 92612
- 오렌지카운티점 : 562-405-0332
- LA 실로암 한의원 : 213-427-0036
2621 W.Olympic Bl. #202 LA, CA 90006
- LA 비디오 마트 : 213-381-2647
363 S.Western Ave. LA, CA 90020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